

제2권 제2호
2011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 이병하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 형성과
민족적 경계의 구성

문동환

재중한국인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

최석호

서평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한인 이민사, 1903-1957

김미경



한국이민학

2011년 제2권 제2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한 경 구(서울대학교)
차 기 회 장 이 철 우(연세대학교)
부 회 장 정 기 선(IOM이민정책연구원) 허 재 준(한국노동연구원)
 박 경 태(성공회대학교) 장 수 현(광운대학교)
감 사 이 충 훈(서강대학교) 이 창 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사

총 무 이 사 한 건 수(강원대학교) 편 집 이 사 설 동 훈(전북대학교)
연구 이 사 이 규 용(한국노동연구원) 기 획 이 사 이 진 영(인하대학교)
섭 외 이 사 김 이 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 제 이 사 김 현 미(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1년 제2권 제2호

연구논문

-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 설동훈 · 이병하 5
-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 형성과 민족적 경계의 구성 | 문동환 ... 21
- 재중한국인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 | 최석호 ... 91

서평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한인 이민사, 1903-1957 | 김미경 123

부록

- 한국이민학회 정관 127
-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135
-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139
-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141
-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47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고재훈(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2 No.2 2011

Contents

ARTICLES

- Sweden'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 Dong-Hoon Seol, and Byoung-ha Lee
-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 Boundaries
 among Filipino Migrants
 | Donghwan Moon
-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Transnational Migrants of
 Korean Self-employed Persons in China
 | Suk-Ho Choi

BOOK REVIEW

-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 Mikyoung Kim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연구논문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 이병하***

이 논문은 스웨덴의 이민정책을 이민자의 현황과 법적 지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과 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던 '통합·양성평등부'를 2010년 12월 31일 해체하고, 사회통합의 핵심기능을 '고용부'의 '사회통합장관'에게 이관하였다. 그러므로 2011년 이후 스웨덴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고용부에서 법무부, 이민청, 보건·사회부, 교육·연구부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민, 난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있는 이민청이 스웨덴 의회와 정부가 결정한 이민, 난민 정책을 실제 집행한다. 스웨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며, 이민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주제어: 이민자,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 이민법, 이민청, 스웨덴

* 이 글은 설동훈·강기정·이병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1 중 저자들이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hseol@chonbuk.ac.kr.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mamanan72@gmail.com.

I. 이민 현황과 정책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인구의 해외이주보다는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많은 순이입국이 되었으나, 이입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었다. 스웨덴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낳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을 주로 취업이민을 통해서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73년 석유위기와 그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발생하면서 취업이민은 중단되었다. 그 후 스웨덴의 이민은 난민 수용으로 형태가 변화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은 동유럽이나 비유럽권으로부터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난민수용국이 그러하듯이 가족 재결합을 통해 이민자 수가 증가하였다.

1970년대 중엽 이전까지 스웨덴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동화’되어 근본적으로 스웨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5년 스웨덴 의회는 이민자가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celebrate)할 수 있는 새로운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다문화주의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2005년 기준 외국 출생 인구는 100만 명이 넘으며 총인구의 12.4%를 차지하였다. 스웨덴의 이민 인구는 주로 가족 재결합과 같은 ‘연쇄 이주자’(tied-mover)와 난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173,000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그 중 약 9%인 16,000건이 스웨덴 출생자와 외국인 간의 결혼이었다(Torngren, 2011).

오늘날에는 스웨덴에서는 200여 개 언어가 사용되며, 특히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함께 많은 언어가 존재한다.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이라크·중국·태국·이란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의 인구 증가가 주목된다. 그들의 수는 외국인 주민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늘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무슬림이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스웨덴 사회에서 반이슬람 정서도 자라났다. 예컨대, 2004년에는 방화범들이 총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인 말모(Malmö)시 소재 이슬람사원(mosque)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2006년 총선거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이끄는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이 중심이 된 중도우파연합이, 12년간 집권해온 요란 페르손(Göran Persson) 전 총리의 사회민주당을 물리치고 집권하였다. 라인펠트는

<표 1> 스웨덴의 이민 현황, 2000-2009년

이민 유형(migration flows; 외국인) 나라별 정의(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9	
					2000-2004	2005-2009		
이입	4.8	5.6	8.9	8.9	5.1	8.2	82.4	
이출	1.4	1.7	2.1	2.0	1.6	2.0	18.3	
유형별 이입(외국인)	(단위: 천명)				(단위: %)			
허가 기준 통계치(표준화)	2008	2009	2008	2009	이민자 출신국 중 상위 10개			
취업	0.8	2.7	1.1	3.8	전체 이민자 중 %			
가족(가족동반 포함)	33.7	34.7	47.5	48.7	--- 2000-2008 연평균 ■ 2009			
인도적 기준	11.2	11.1	15.7	15.6	Iraq			
자유이동	25.3	22.8	35.7	31.9	Somalia			
기타	0.0	0.0	0.0	0.0	Poland			
전체	71.0	71.3	100.0	100.0	Denmark			
					China			
					Thailand			
					Germany			
					Iran			
					Finland			
					Turkey			
단기 이민(단위: 천명)	2005	2008	2009	평균 2005-2009				
유학생	10.8	14.1	16.7	12.8				
연수생	0.6	0.7	0.7	0.6				
워킹 홀리데이				
계절 근로자	0.5	3.7	7.3	2.8				
기업 내 전근자				
기타 단기 취업자	4.8	13.6	10.9	8.7				
난민 신청자 유입(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9	
	1.8	1.9	2.6	2.6	2.9	2.8	24 194	
인구 증가의 구성 요소(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9	
전체	2.5	4.0	8.0	9.1	3.4	7.2	85	
자연 증가	-0.3	1.0	2.0	2.4	0.2	1.7	22	
순 인구이동	2.8	3.0	6.1	6.8	3.1	5.5	63	
이입 저량(stocks of immigrants; 총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9	
외국 출생 인구	11.3	12.5	13.9	14.4	11.8	13.4	1 338	
외국인 인구	5.3	5.1	6.0	6.4	5.2	5.7	595	
귀화(외국인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9	
	9.0	7.8	5.3	4.8	7.4	6.8	28 562	
노동시장 성과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9	
고용률(%)								
자국 출생 남성	75.8	76.2	77.9	75.6	76.5	77.0		
외국 출생 남성	59.6	63.7	69.9	66.7	63.9	66.8		
자국 출생 여성	73.2	72.6	74.5	72.8	74.0	73.5		
외국 출생 여성	54.7	58.4	58.7	58.0	58.0	58.3		
실업률(%)								
자국 출생 남성	5.1	7.0	5.1	7.5	5.1	6.1		
외국 출생 남성	13.5	15.1	11.5	16.2	12.5	13.6		
자국 출생 여성	4.3	6.9	5.5	6.9	4.4	6.2		
외국 출생 여성	11.2	13.7	12.9	14.5	10.3	13.4		
거시경제지표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9	
실질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4.5	3.2	-0.6	-5.3	3.0	1.0		
1인당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4.3	2.7	-1.4	-6.1	2.6	0.3	30 872	
취업자 수(연평균 증가율 %; 천명)	2.2	0.8	1.2	-2.0	0.7	0.9	4 499	
실업률(노동력 중 %)	6.9	7.7	6.2	8.3	6.7	7.1		

자료: OECD (2011: 325).

소득세 인하라는 우파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반대당인 사회민주당이 기초를 닦은 복지국가 모델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의 색깔을 중도로 변화시켜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는 페르손 총리 집권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감세와 복지체계 유지’라는 어려운 공약을 지켜내면서, 스웨덴을 유럽 최고 모범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라인펠트의 온건당은 중도우파 연합은 2010년 9월 19일 시행된 총선거에서 349석 가운데 172석을 얻어, 157석을 얻은 사회민주당 중심의 중도좌파 연합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다.

라인펠트 총리의 신정부는 2006년 10월 6일 ‘통합·양성평등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 1월 1일, 법무부와 외무부에서 다루던 업무들을 묶어서 ‘통합·양성평등부’(Integrations- och jämställdhetsdepartementet;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가 출범하였다. 이 부처에서는 통합정책,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소수자정치, 사회운동정치, 청년정책, 도시정책, 소비자정책 등을 다루었다. 한편, 재임에 성공한 온건당 정부는 2010년 12월 31일 ‘통합·양성평등부’를 해체하였다. ‘통합·양성평등부’에서 그 간 다루던 업무는 법무부, 고용부, 교육·연구부 등으로 분산·이관되었다.¹⁾

II.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이민청’에서는 합법적 취업허가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까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반자에게 그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신청자의 취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직계가족)는 체류허가와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 취업허가·체류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일하고 교육받으며 스웨덴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계가족 이외의 다른 가까운 가족구성원은, 만약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인이 있고, 그들 사이에 의존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즉 진술한 관계

1) http://sv.wikipedia.org/wiki/Integrations-_och_j%C3%A4mst%C3%A4lldhetsdepartementet

가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자가 스웨덴의 공공질서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혼이나 별거의 상황일 경우, 일부다처 상황인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의 한쪽이 18세 미만이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부모 사이의 가족 재결합의 경우 DNA 분석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민청에서 그들의 가족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한다.

체류허가의 핵심은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²⁾

- ‘유럽 직업 이주 포털’³⁾을 통해 스웨덴 노동시장에 지원한다.
- 취업이 결정되면,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서면’(written offer of employment)을 받는다. 고용주는 급여와 근무조건의 승인을 위해, 고용제안서면을 노동조합에 보낸다. 노동조합은 고용제안서면을 승인한 후 그것을 고용주에게 돌려보내고, 고용주는 그것을 노동자(취업허가 신청자)에게 보낸다. 고용제안서면은 취업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노동자는 스웨덴 이민청에 취업허가를 신청한다. 이 때, 가족의 취업허가와 체류허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민청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주 정도 걸리며,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할 때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다.
- 취업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스웨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업허가증을 받는다.

결혼 또는 동거를 근거로 스웨덴에 이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스웨덴 당국은 그 사유가 ‘진실’이라면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렇지만 결혼 또는 동거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⁴⁾ 배우자 사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2년의 ‘정착을 위한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for settlement)를 받는다.

‘정착을 위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스웨덴에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에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스웨덴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지만,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⁵⁾

2) <http://www.sweden.se/eng/Home/Work/Get-a-permit/Reading/4-steps-from-job-offer-to-arrival>

3) The European Job Mobility Portal. <http://ec.europa.eu/eures>

4) <http://www.sweden.gov.se/sb/d/14293/a/159040?setEnableCookies=true>

결혼이민자가 3년 이상 스웨덴에 체류하였고, 그 기간에 스웨덴 국적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2년 이상 결혼 또는 동거를 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외국인인은 5년, 난민 또는 무국적자는 4년의 체류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결혼이민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Ⅲ.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 법제

스웨덴의 이민 시스템은 ‘외국인법’(Aliens Act, Statute 2005:716)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 법에 근거하여 스웨덴 정부는 ‘외국인법 시행령’(Aliens’ Ordinance, Statute 2006:97)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이민 시스템과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Reception of Asylum Seekers and Others Act, Statute 1994:137)과 그 시행령(Reception of Asylum Seekers and Others Ordinance, Statute 1994:361)의 규율을 받는다. 국경통제는 유럽의회의 규정(Regulation (EC) No 562/2006)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에 관한 쉥겐국경조항(Schengen Borders Code)에 의하여 규율된다(Swedish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9).

2010년 4월 15일에는 가족 이민에 대한 새로운 법제가 도입되었다.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거주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족관계유지 요건이 규정되었다. 그 조건은 재정보증인이 자기 자신의 생활 유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가족이민으로 함께 살게 될 외국인을 위한 표준적이고 적절한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보증인 본인이 스웨덴에서 난민의 신분으로 체류 허가를 받으면, 자신의 자녀가 아동이면 또는 재정보증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동반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 존재할 경우, 가족관계유지 요건을 완전히 또는 일부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5) http://www.migrationsverket.se/info/348_en.html. http://www.uklgig.org.uk/europe_residency.htm.
일반 외국인이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http://www.migrationsverket.se/info/454_en.html

6) http://www.migrationsverket.se/info/499_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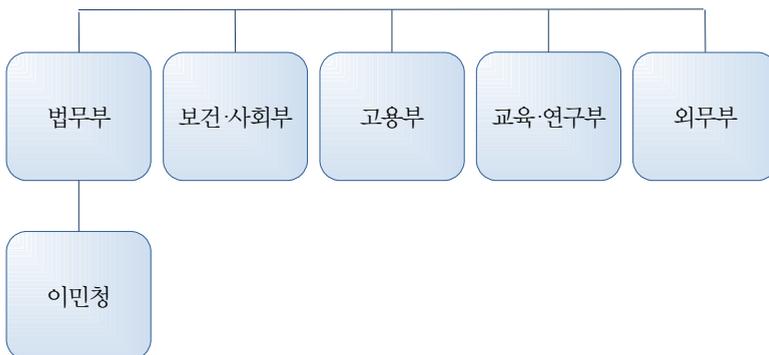
2010년 7월 1일에는 아동이 포함된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이민 및 체류허가가 결정될 때,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부모나 자녀가 스웨덴에 체류하고 사람은 체류허가를 받기가 더 수월하게 되었다.⁷⁾

2. 추진체계

스웨덴 정부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던 ‘통합·양성평등부’를 2010년 12월 31일 해체하고, 사회통합의 핵심기능을 ‘고용부’의 ‘사회통합장관’에게 이관하였다(Swedish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12). 그러므로 2011년 이후 스웨덴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고용부에서 법무부, 이민청, 보건·사회부, 교육·연구부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추진한다.

1) 법무부(Justitiedepartementet: www.regeringen.se/sb/d/1476; Ministry of Justice): 경찰, 사법체계, 교정·보호관찰 서비스, 이민·난민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맡고 있다. 전 부서를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있고, 그와 별도로 ‘이민·난민정책장관’(Minister for Migration and Asylum Policy)이 있다. 법무부에는 21개 국(division)이 있다.

[그림 1] 스웨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7) <http://www.sweden.gov.se/sb/d/14293/a/159040?setEnableCookies=true>

법무부 산하에는 ‘이민청’(Migrationsverket: www.migrationsverket.se; Migration Board) 이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이민청에서는 스웨덴을 방문하거나, 스웨덴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고 체류허가를 발급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이민청은 스웨덴 의회와 정부가 결정한 이민·난민 정책을 실제 집행한다. 또한,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여러 기관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한다. 이민청에서는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본국으로 귀환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담당한다. 또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신청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자(Applicants' Ombudsman)도 두고 있다. 이민청에는 난민시험, 접수, 이민·시민권 관리, 행정 절차, 유럽과 국제협력, 행정, 커뮤니케이션, 인적자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8개 부서가 있다. 이민청은 재외공관, 경찰, 이민법원·이민항소법원, 지방행정청, 지방자치단체들, 비정부기관들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한다.⁸⁾

2)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 www.regeringen.se/sb/d/1474;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복지, 소득안정, 사회서비스, 의료·보건·요양, 건강 증진, 아동·장애인의 권리, 주거, 정부조달, 종교집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사회장관(Minister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외에, 공공행정·주택장관(Minis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Housing), 사회안정장관(Minister for Social Security), 아동·노인장관(Minister for Children and the Elderly)이 있다.

3) 고용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www.regeringen.se/sb/d/8270; Ministry of Employment):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생활정책 및 통합정책을 수행한다. 노동시장정책에는 노동 관련 정책 집행과 작업장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룬다. 또한, 장애인과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과 사회통합, 차별,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 시민권, 소수자집단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책임도 진다. 고용장관(Minister for Employment)외에 통합장관(Minister for Integration)이 있다. 통합장관은 외국인 또는 이민자 대상 통합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8) 스웨덴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증, 취업허가,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경찰은 국경통제와 불법체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민법원(Migration Courts)과 이민항소법원(Migration Court of Appeal)은 이민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는다. 지방행정청(County Administrative Boards)은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를 수용하고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비정부기관과 구호기관은 난민신청자들을 돕는다.

사회 내부의 취약집단 통합정책을 수행한다. 즉, 고용부에서는 ‘이민자 대상 통합 정책’이 아니라 ‘스웨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교육·연구부(Utbildningsdepartementet: www.regeringen.se/sb/d/1454;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학교, 대학, 연구, 양성평등 쟁점, 청년정책을 담당한다. 교육정책은 미취학 아동 교육, 의무 교육, 고등 교육, 교육재정지원 등을 아우른다.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장관’(Minister for Education, Deputy Prime Minister)이 있고, 별도로 ‘양성평등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이 있다.

5) 외무부(Utrikesdepartementet: www.regeringen.se/sb/d/1475;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외교정책의 주무부처인데,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사증과 체류허가 발급 신청 접수를 대행한다. 외무장관(Minister for Foreign Affairs)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장관(Minis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통상장관(Minister for Trade)이 있다.

IV.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196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민자를 환영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와 난민의 통합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은 종족적 다원주의(ethnic pluralism)를 기초로 하여 세 가지 가치 즉 평등, 선택의 자유, 파트너십을 천명하였다.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이민자들은 스웨덴 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개인이 문화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파트너십’이라는 가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관용과 이민자와 스웨덴 국민 간의 연대를 주장할 수 있었다.

1998년 이민청이 설립되면서 그 기조는 ‘종족적 다원주의’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변화했고, 스웨덴 사회의 통합을 내세웠다. 스웨덴 이민청은 이민자들의 동등한 권리가 유지되는지를 감시하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등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2008년 9월,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통합·

양성평등부'가 주도했던 이 정책은 현재에는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 통합의 면에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며, 이민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스웨덴 이민자 통합의 종합 전략은 일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신규 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영접: 신규 이민자들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 고용과 기업가정신: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시간제 고용이 결합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업(step-in-jobs)이 도입되었다. 또한, 이민 배경을 가진 기업가들을 적절한 돕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었다.
- 더욱 나은 교육과 평등: 이주 아동이 교육 수준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 과목에서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 예산이 배정되었다.
- 성인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2009년 10월부터 신규 이민자 중 12개월 이내(시작부터 수료까지)에 스웨덴어 수업을 이수하여 수료한 사람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을 시행하였다.
- 낙후지역 개발: 낙후된 도시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 공유 가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상호 관용 및 이민자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SGI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에서 스웨덴은 10점 만점에 7점으로 총 4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스웨덴은 비교적 오랫동안 종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스웨덴은 순이민유입국(net immigration country)가 되었으며, 1960년대부터는 스웨덴의 이민자 인구는 그 비중이 주목할 만한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 스웨덴 인구의 약 5분의 1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스웨덴 밖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웨덴 거주자 중 적어도 열 명 중 한 명은 이민자다. 그것은 스웨덴을 비교적 짧은 이민의 역사에 비해 큰 이민 인구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종종 다문화적 조직들에 기반을 둔 이민정책의 나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정책은 캐나다·호주 같은

전통적 이민국의 다문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스웨덴이 다문화주의 국가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자주 인용되는 근거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강력한 국가 개입’(strong state interventionist)이다.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성인 이민자를 위한 무료 스웨덴어 교육,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과, 종교단체·시민단체의 소수문화 지원, 무료 모국어 교육, (이민자에 대해) 일련의 노동시장 지원정책,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등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들로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들은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예컨대, 외국 출신자들의 높은 실업률은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또한, 모든 주요 도시의 광범위한 교외 지역 거주자들은 스웨덴 사회에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대도시에서는 ‘종족별 격리’(segregation)가 발견되고,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명백하다. 문제는 정치 참여의 정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09: 11-12).

2. 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스웨덴에서 결혼이민자는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 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므로, 결혼이민자는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스웨덴의 시민 대상 주요 사회통합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 ① 공공부조: 스웨덴은 공공부조를 경제적 지원 또는 사회부조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모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자격요건은 스웨덴 내 거주자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개인 또는 가구 중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스웨덴 정부는 그들에게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공공부조인 생계지원제도의 지원체계는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 주행정청(länstyrelsen)으로 이루어지지만, 수급자 선정의 해석과 적용은 지방정부에 일임되어 있어 일반 권장 기준 대비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② 사회보험: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며, 경제적 안정과 노동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의료보험수당, 치과보호, 현금급여, 부모보험), 연금보험(기초연금, 특별급여), 상해보험, 실업보험, 기타 수당(자녀가 있는 세대주 대상 주택수당) 등이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스웨덴은 가족 유형에 따라서도 가족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령, 성,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 가족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시작으로, 장애아동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당, 차량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미혼모 가족복지 분야에서는, 미혼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혼모 가족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혼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제도 덕분에, 스웨덴의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 등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다. 이혼 가족복지 분야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혼 후 한 부모가 된 경우 한쪽 부모가 약속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보상받는 제도인 ‘부양비 선급 제도’가 있다. 스웨덴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바탕이 되어, 모든 노인은 거의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매월 상당의 복지 급여를 받는다. 복지제도의 내용으로는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최저보장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료시설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 노인 서비스와 양로원 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에 입각하여 노인 주거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2) 가족정책: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의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권으로서 복지수급권을 강조하고, 삶에 대한 부모의 파워와 가족의 선택 자유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은 유럽국가 중 가장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웨덴의 가족정책 이념은 사회연대와 평등으로 개인이 어떤 가족 유형에 속하는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과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양육과 부양의 탈가족화 정도가 높아 가족복지는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

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할 과제로 파악한다. ①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스웨덴 남녀평등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로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출산급여, 부모보험, 아동보건센터를 운영과 아동간병 휴가 및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육과 다양한 선택적 휴직 시스템, 휴직 시 높은 임금 대체율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진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성도 육아휴직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 중 8주를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 또는 모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② 양육과 돌봄 지원정책: 스웨덴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고출산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저출산 국가가 출산력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간주한다. 스웨덴은 국제아동권익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작성한 ‘어머니로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아동에 대한 인적투자는 국가경쟁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정부는 공교육 전담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연구부로 이관하여 전체보육서비스료의 90%(부모 부담은 10-15%로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세 번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추가자녀수당, 16세 이상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장 자녀수당이 있으며, 입양수당, 생활보조비 지급, 보육제도(탁아제도, 아동 보육, 아이 보호)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③ 부모권 보장정책: 스웨덴은 양성평등 양육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유아 육아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고자 기존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제도의 개선안으로 제안된 정책이다. 더불어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한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남성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성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간호 휴가, 학교방문일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제도화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보험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지원된다.

3) 고용정책: 스웨덴의 ‘안내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me)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사회통합정책에 필수적인데 수많은 이민자가 스웨덴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많이 없는 상태로 스웨덴에 입국하기 때문이다(OECD, 2007: 271). 새롭게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언어와 직업 교육은 앞으로 더 늘어

나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07: 282). 스웨덴에서는 EU 회원국 이외의 나라, 즉 제3국 출신 외국인 주민에게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자녀교육정책: 스웨덴에서는 사립학교들이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것은 학교들에서 이민자 관련한 차별이 늘었기 때문이다(OECD, 2010: 166).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스웨덴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재정 지원 시스템을 분권화하고, 이민자 교육에 대한 자원을 학교, 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배했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을 분배하였다(OECD, 2010: 177).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코틀랜드 등과 더불어 비교적 차별이 적은 나라로 꼽힌다(OECD, 2010: 198).

참고문헌

- 박성혁·성상환·곽한영·서유정. 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성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ition. London: The Guilford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Thomas, and Jan Niessen. 2011.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Brussels: British Council and Migration Policy Group.
- Niessen, Jan, Thomas Huddleston, and Laura Citron. 2007.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06-2007*. Brussels: British Council Brussels.
- OECD. 2007. *Jobs for Immigrants (Vol. 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_____. 2010. *Equal Opportunities: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 Immigrant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_____.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eol, Dong-Hoon. 2006.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mmigration Process and Adaptation." *Asia-Pacific Forum* 33: 32-59.
- _____. 2010. "Which Multiculturalism? Discourse of the Incorporation of Immigrants into Korean Society." *Korea Observer* 41(4): 593-614.
-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 2009. *Security and Integration: Integration Report 2009 — Do Policies Support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to Society?* Gütersloh, Germany: Bertelsmann Stiftung.
- Swedish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EMN Policy Report 2010: Sweden*. Stockholm: Migrationsverket.
- Torngren, Sayaka Osanami. 2011. *Attitudes Towards Interracial Dating and Marriages*. Malbo, France: Malbo Institutue for Studies of Migration, Diversity and Welfare.

(2011. 12. 3. 접수; 2011. 12. 8. 수정; 2011. 12. 15. 채택)

Sweden'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youngha Lee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Sweden's immigration policies,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immigrants,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We mainly focus on immigrants-targeted policies and Swedish citizens-targeted ones in order to overview immigration policies with relation to overall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Swedish government abolished the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on December 31st, 2010, and the central activities for social integration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er for Integration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Since 2011, the Ministry of Employment works on the tasks of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gration Board,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The Ministry of Justice takes on jobs in relation to immigration and refuge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gration Board carries ou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decided by the Swedish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The Swedish policies for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are designed to enhance language skill of immigrants as well as their educational level. Further, those policies aim to strengthen job training for immigrants.

Keywords: Immigrants,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mmigration Laws, Immigration Agency, Sweden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 형성과 민족적 경계의 구성: 필리핀 스토어의 민족지적 연구

문 동 환*

본 논문은 전주에 소재한 필리핀 스토어를 참여관찰한 민족지로서, 폐쇄성을 내포한 민족 연망과 민족성의 경향이 동화와 이화의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필리핀 스토어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 연망의 형성과 민족적 경계의 구성 과정을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의 궁극적인 논의는 동화와 이화의 과정이 서로 분리되고 상충되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주에는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가 있다. 하나는 필리핀 이주여성 마리아와 필리핀 이주노동자 페드로가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마리아 스토어이고, 다른 하나는 필리핀 이주여성 카라메가 운영하는 카라메 스토어이다. 이 중 카라메 스토어는 2007년에 최초 개점한, 전주에서의 최초의 사례이고, 마리아 스토어는 그보다 1년 뒤인 2008년에 개점하였다. 두 필리핀 스토어는 도시 외곽에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구도심으로 이전했다. 필리핀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자에게 필리핀 음식과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공간이다. 하지만 스토어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을 형성시키고 확장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 이주자는 성당을 통해 일차적인 사회적 연망을 형성했지만, 스토어가 등장하면서 성당의 사회적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또한 스토어는 민족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가 민족적 경계를 구성시켜 나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토어 안에서의 일련의 문화적 실천은 이용자가 민족성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한국인'에서 '완전한 필리피노'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점은 스토어와 스토어를 이용하는 필리핀 이주자의 경험 및 실천들이 반드시 동화를 가로막고 이화를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의 민족지적 사례는 민족 연망의 폐쇄성이 오히려 동화의 지향과 의지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성의 경험과 민족적 경계의 구성도 일정한 폐쇄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필리핀 이주자가 보여주는 태도와 실천은 이주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동화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필리핀 스토어, 필리피노, 사회적 연망, 민족성, 동화주의

* 전라북도의회 전문위원. army724@korea.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래된 이주의 역사와 경험을 지닌 서구에서 이주연구(migration studies)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학문적 영역으로 존재해 왔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이 국외에서 노동력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1960년대에 이르러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와 중동의 개도국에서 대규모 이주자가 발생한 이후로 국제이주는 세계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요 요인으로 목격되고 있다(Massey *et al.*, 1993).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학계의 이주연구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무엇보다 이주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주제는 이주를 촉발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주의 요인을 다룬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른바 신고전경제학과 신경경제학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이중노동시장이론과 세계경제이론을 떠올릴 수 있다. 이주의 요인에 대한 여러 이론은, 분석단위와 수준에 따라 접근이 다르지만, 이주를 개인의 선택과 실천으로서 이해할 것인지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주의 문제는 학계의 내부와 외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과 결혼을 매개로 한 외국인의 유입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다민족(mutietnic)’사회로 변화해 간 서구처럼 한국사회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이주가 낳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윤리적 차원의 논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현상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오랜 이주의 역사를 지닌 국가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 전의 문화권이 공유하는 관습 및 언어가 이주자로 하여금 이주사회의 주류 성원과 구별되고 분리되도록 하는(Logan *et al.*, 2002)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자 집단 중에서 국적과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집단(ethnic group)¹⁾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1) ethnic이나 ethnicity는 대개 종족적/민족적, 종족성/민족성으로 번역된다. 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혹자는 아예 번역어가 아닌 영어 발음 ‘에스니시티’나 ‘에스닉’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특정 집단이

주류사회에 때로는 통합되고 때론 분리되는 지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둘 때, 노동과 결혼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발을 내딛는 이주자 집단이 민족 연망(ethnic network)을 구축하고, 한국사회의 주변부를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점유해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 글은 필리핀 스토어²⁾를 참여관찰한 민족지이다.³⁾ 전주에는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가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평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이 두 스토어를 찾아가다. 이주노동자는 뻘뻘한 근무 일정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근무지가 전주 교외 지역이나 인접 시 군에 있어 스토어까지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스토어를 찾는다. 심지어는 전남 등지의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이도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역시 일, 육아, 가사,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 등 외출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스토어로 모여든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필리핀 스토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답하면서 필리피노가 영위하는 이주생활의 단면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이주민으로서 필리피노가 스토어에서 고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며, 민족성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스토어에서 민족적 경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동화(assimilation)와 이화(dissimilation)의 이분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먼저 제2장에서는 ‘마리아’와 ‘카라메’라는 두 영업주가 운영하는 두 스토

모국에 있을 때는 민족인데 이주해서 모국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왜 종족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족보다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한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족이라는 표현이 생물학적 종(種)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차별적인 뉘앙스를 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종족 대신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필리핀 스토어(Philippine store)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필리핀 음식과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점을 지칭한다. 이하 편의상 필리핀 스토어와 스토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3) 민족지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 민족지(ethnography)는 인류학이 발전시켜온 서술방식으로서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완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족지가 “인류학자가 장기간의 현지연구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한 사실을 이론에 맞추어 쓰는 일종의 과학적 르포르”(채수홍, 2003)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에 관한 기술과 나열로 일관하기보다는 현상 기술에 기초하되 과학적인 설명(explanation)을 통해서 완성되는 민족지가 좀 더 학문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 역사를 기술하고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필리핀 스토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social network)과 관계 맺기의 양상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민족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필리핀 스토어가 문화적 영토성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민족성 경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장, 즉 스토어에서 보여주는 필리핀 이주자의 경험과 실천이 동화와 이화의 이분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윤리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일방적인 동화주의적 접근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를 지양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방인’을 ‘우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향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과 이론적 모델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Heisler, 1992).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이주자의 삶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민족지적으로 기술하면서 동화/이화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이주연구의 주요 동향

올림픽의 개최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유입⁴⁾이 본격화되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해왔던 한국사회는 어느 순간 외국인의 급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하며 국가와 민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던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수정을 가해야만 했고(한진수, 2006: 159),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개념을 투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사회 일반이 외국인의 ‘대거 출현’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일상에서라기보다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였다. 미디어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피해

4) 여기에서 외국인의 유입이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유입과 산업연수생과 같은 초기 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뜻한다. 이주여성의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초 한국의 농촌 총각과 중국 조선족 여성을 짝지어주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직전인 1980년대 후반에는 통일교가 주선한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이 대거 이루어졌다(윤형숙, 2005).

자, 힘없는 자(the powerless), 심지어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들로 재현하며 타자화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시켰다.⁵⁾ 게다가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 임금체불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도는 외국인에 대한 ‘피해자 관점’을 더욱 견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학계의 연구와 보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초기의 이주여성/이주노동자 연구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수집하여 고발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후에는 인류학과 사회학뿐만 아니라 제반 학문 분야에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접근이 다양해지면서 연구 동향이 분기하는 양상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는 성과를 보여 왔다. 주요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최근의 주요 연구 동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갈등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유명기, 1995; 함한희, 1997; 윤형숙, 2005; 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 김수재, 2008)과 사회학(김영란, 2008; 설동훈·윤홍식, 2008)이 주도하고 있다. 이 분과의 연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유입국의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갈등과 대응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건수(2006)와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고서나 학술적 연구가 이주자들이 겪는 극단적인 차별과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정작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다.

둘째, 피해자 관점의 극복 및 행위자성의 부각이다. 이런 경향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전 지구적 분업체계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해버린 이주 흐름에 동참하긴 했지만, 이주의 동기와 배경에는 강요된 측면과 아울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의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또한,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필리핀 이주여성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해 정체성의 정치를 구사하며 대응하고, 영어라는 상징적 자본을 통해 사적/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규정하려고 시도한다(윤형숙, 2005).

반면,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은 시각을 달리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일상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시도를 실천적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비자발적인 즉,

5) 재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이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타자화 및 재현을 이해하는 데는 한건수(2003)와 양정혜(2007)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딜레마에 봉착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들의 논의는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을 절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주여성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목표와 현실적 한계가 생산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를 구조적인 폭력의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 대한 반발로 행위자성을 부각하다 보니 구조와 행위자의 실천 양자의 관계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성찰해 볼 때 이들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적응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면 이와는 달리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실천을 논의하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권종화(2004)와 변현진(2004)의 논문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권종화(2004)는 대표적인 두 개의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를 초국가적 실천의 산물로 간주하면서 이주자 공동체의 정치적 실천 양상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에 투영된 의미가 단순히 이주자가 주변적 지위로 인한 억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국가적인 정치적 실천의 성격을 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변현진(2004) 역시 이주노동자 조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권종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연구내용과 접근 방법상의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변현진은 국적에 따른 이주노동자 조직의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국적별로 조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응집요소가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조직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소가 필리핀은 종교, 미얀마와 네팔은 정치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국가별로 정형화된 조직 형성의 과정이 작동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두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주자들의 집단적 조직이 그것의 형성과 활동에 있어 초국가적인 또는 트랜스로컬(translocal)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대의 이주현상을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논문은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포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보면 기존의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이주여성⁶⁾ 연구가 주로

6) 이주여성은 여성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각각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여 다루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일상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상을 지배하는 제반 요소들이 많은 측면에서 상호 이질적이고 한국에서의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근래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주자의 유입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적 범주인 이주자 집단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필리핀 국적 출신의 이주자들이 출입하는 필리핀 스토어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동화주의적 접근의 한계

동화주의적 접근은 미국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가 교통수단의 미비로 직장 근처에서 살아야만 했던 19세기 후반의 경험에 기초하여 대두한 것이었다(Logan *et al.*, 2002). 그러나 교통과 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이주사회의 경우 이주의 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이주를 감행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나 인적자본 역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층위를 갖추고 있다(Logan *et al.*, 2002). 사회과학계 전반에서도 동화주의를 “납아 빠진 이른”(Alba and Nee, 1997)으로 간주하며 용도 폐기해야 할 모델로 지목한다.

한국사회에서도 동화주의를 한국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강제하는 일방적인 태도로 보고 지양해야 할 시각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동화라는 말 대신 흔히 쓰이는 용어가 통합(integr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원주의(pluralsim)이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나 다원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아직 명확히 합의된 바가 없이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또한, 동화주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를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기초한 동화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담론이나 정책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동화는 “경험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의 기억, 정서, 태도들을 체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통합되는 상호침투와 융합의 과정”(Park and Burgess, 1969; Alba and Nee, 1997에서 재인용)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들이 만날 때 경계가

다(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표현으로 이주여성이라는 표현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불분명해지는 과정으로서(Yinger, 1982; Logan *et al.*, 2002에서 재인용), 동화의 과정은 민족 정체성의 희석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동화와 상반된 쌍을 이루는 이화는 오히려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 정체성의 희석 정도와 반비례한다. 요컨대 동화는 민족성의 희석으로 완성되는 과정이고, 이화는 민족성의 강화와 유지를 통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화나 이화 모두 동화주의적인 전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동화와 이화를 구분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이주자가 이질적인 정착지의 환경에 맞추어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고전적인 동화주의적 접근은 엔클레이브와 같이 민족성을 내포한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민족적 연망이 폐쇄성과 경계 설정을 수반함으로써 주류사회의 동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화주의적 접근이 지닌 주요한 한계점의 하나는 엔클레이브와 같은 특정 민족의 거주밀집지역이나 상업밀집지역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을 통해서 동화와 이화의 전략을 선별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자 집단이 자신의 민족성에 대한 애착을 희석하거나 폐기하지 않고서도 주류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절충시키는 특정한 적응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Hurh and Kim, 1984).

간스(Gans 1997)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 정체성과 동화가 상충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민족 집단의 지도자가 공적으로는 민족 공동체 안에서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동화되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족 집단의 리더십은 주류사회의 지도자와 교류를 필요로 하므로 민족 정체성이 동화와 반드시 충돌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자가 정착지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응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적응의 양상이 무엇이 되었건 이주사회의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이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적응(adaptation)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행위와 태도이다(Barker 1991; 설동훈·윤홍식, 2008에서 재인용). 또한, 허원무·김광정(Hurh and Kim, 1984)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부합하는 삶의 조건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와 행위 유형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주자의 적응 과정이 반드시 정착지의 환경과 조건을 준

거로 삼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주자는 자신이 이주한 목적을 달성하고 정착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주류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폐쇄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선별적인 태도는 문화화⁷⁾나 동화 또는 분리(segregation)와 같은 적응 유형 중에서 특정한 유형이 항상 지배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화와 이화의 이분법적 접근은 이런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폐쇄적인 사회적 연망에 대한 분석과 논의 역시 동화와 이화의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동화주의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는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지,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이주자가 어떤 조건 아래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택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연구자가 동화주의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연망은 이주의 전 과정 즉, 이주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응과 정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친족적 유대와 같이 모국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연망은 이주의 결정에서 초기 정착에 이르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주가 지속함에 따라 형성되고 구조화된 사회적 연망이 이주 노동력의 규모와 양상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Gross and Lindquist, 1995; 설동훈, 1999에서 재인용), 이후 이주 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도 동족 간에 새로이 형성된 사회적 연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20세기 초 이탈리아인들의 미국으로의 이주 역사에서도 가족적·친족적 유대가 ‘이주 사슬’(chain migration)을 형성하여 대규모 이주를 촉진했으며 초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MacDonald and MacDonald, 1964).

둘째, 이주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연망의 핵심적인 기능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부조이며(Janjua-Jivraj, 2003),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동화와 배척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샌더스와 그의 동료들(Sanders *et al.*, 2002)은 다민족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사회적 유대에 의존하

7) 고든(Gordon, 1964)에 의하면 문화화는 동화의 다른 형태 즉,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와 같은 것이다.

는 맥락을 분석하면서, 폐쇄적인 민족 연망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⁸⁾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민족과 혈연에 기초한 사회적 연망이 폐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뉴커머들(new comers)에게 적응의 용이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주류사회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족 간의 유대는 타민족과의 교류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민족 집단에 기초한 연망이 폐쇄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동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보다 집단적 자원(Sanders, 2002)을 생성시킴으로써 적응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필리핀 스토어는 민족성을 띤 공간이다. 민족성은 언어, 친족, 종교와 같은 문화적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Bottomley, 1992).⁹⁾ 단순히 필리핀 음식과 상품의 판매가 민족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리핀 스토어는 필리피노의 집단적 행위를 민족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모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들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공간적 경험과 실천은 스토어를 단순한 상업적 공간에서 민족성을 띤 공간으로 전화시킨다. 전술한 것처럼, 이처럼 민족성을 띤 공간의 형성이 곧바로 주류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동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리핀 스토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확장하는 사회적 연망 역시 동화주의의 접근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연망이 폐쇄적 속성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이화의 과정으로 귀결되

8)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이론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으로서 포괄적인 이론적 합의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지닌 다양한 합의와 속성 중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연망 또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 뿌리내려 있는 자원(Lin, 2001; 이창호, 2008에서 재인용)이라는 점과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같이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9) 바스(Barth, 1969)는 “집단(groups)을 규정하는 것은 그 집단을 특징짓는 문화적 속성들이 아니라 민족적 경계이다”라고 하면서, “문화적 속성과 제도적 형태의 관점에서만 민족 집단을 연구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의 결과와 생태학적 환경들이 어떻게 신념과 행위 유형의 변화를 끌어냈는지를 혼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Barth, 1969; Sanders, 2002에서 재인용). 민족성이란 개념이 매우 다의적인 것이지만 적어도 바스의 이런 주장을 바텀리(Bottomley, 1992)와 비교해보면 일견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텀리의 주장은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이주사회의 맥락에서 민족성을 이해하려고 한 것임에 반해, 바스의 주장은 이주연구가 아닌 민족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위의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생태학적 환경이라는 말 대신 이주 사회라는 말을 대입시키면 이주사회의 맥락에서 특정 민족 집단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모국에서와 다른 정체성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연망은 소수자로서의 이주자가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논문은 필리핀 스토어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매개함으로써 민족성과 폐쇄성을 띤 스토어가 이주자의 사회적 동화에 이바지한다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연구과정과 방법

필자가 연구자로서 필리핀 스토어의 존재를 확인하고 학술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애초에 연구자는 전북지역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학위논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농·축산업 분야는 발급되는 사증이 다르므로 노동자들의 체류와 취업 조건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규정이 다르다. 또한, 농·축산업의 특성상 도심에서 벗어난 지방 교외 지역에 작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이 다를 것이고 일상의 노동조건도 훨씬 열악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 속에서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던 기존 이주노동자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농업이나 축산업 관련 작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기대난망과 같은 일이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조업보다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수적 규모가 매우 작고, 있다고 해도 미등록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노출을 꺼리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NGO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은 수도권 일원의 공단에 비해 고용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최초로 취업한 곳이 전북지역이라고 해도 결국은 경기도 일원이나 경상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전라북도는 ‘기회의 땅’에서 이주노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유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셈이다. 심지어 어렵사리 수소문한 끝에 만난 경우에도 심층적인 면접은 제한적이었다. 하루의 고된 노동 후에 쉬기 바쁜 이주노동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고용주가 연구자의 접근을 꺼리기도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연구대상을 물색하며 수소문하고 다니던 도중, 익산의 성요셉 노동자의집 사무국장으로부터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은 탓에 피면접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이차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며 필리핀 스토어를 소개해 주었다. 주말이면 그곳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전주시

팔복동 공단 지역에 소재한 필리핀 스토어를 찾아갔다. 이때가 10월 중순쯤이었는데 당시는 이미 필리핀 스토어가 구도심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였다. 결국, 전주가톨릭센터 부근에 있다는 또 다른 필리핀 스토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원래 팔복동에 소재하던 스토어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근으로 옮겨와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가 서로 인접한 곳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적절한 정보제공자들을 물색하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리핀 스토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필리핀 이주자에 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 중 먼저 마리아 스토어를 참여관찰하기 시작했다. 카라메 스토어보다 파티가 열리는 마리아 스토어에서 훨씬 많은 스토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의 밀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필리핀 이주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¹⁰⁾ 현지조사 일정을 파티가 열리는 주말에 집중시켰던 것도 조사과정의 밀도를 높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연구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주로 파티가 열리는 주말을 이용하여 스토어에 들렀으나, 노랫소리와 대화 소리가 뒤섞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현지조사 초기에는 주로 스토어 영업주를 만나거나 스토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관찰하는 일에 집중했다. 음료수나 맥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의 동선과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마닐라의 어느 클럽에 와있는 듯 생경한 느낌이 들었다. 현지조사가 지속되고 방문빈도가 늘어나면서 나는 ‘의심스러운 이방인’에서 ‘익숙한 이방인’으로 바뀔 수 있었고, 나 자신도 스토어 공간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다.

카라메 스토어에서는 한국인 남편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카라메 스토어는 마리아의 스토어와 달리 한국인 남편들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스토어를 방문할 때마다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 남편들은 연구자가 필리핀 이주여성과 인터뷰를 할 때도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연구자는 마리아 스토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

10) 필리핀 이주자들은 연구자를 경계했고 자신들만의 공간에 이방인이 와 있다는 사실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듯했다. 연구자는 이것이 미숙한 현지조사 경험 때문이거나 아니면 피면접자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진행되면서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심스러운 이방인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현지조사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언어소통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토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한국인 남편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¹¹⁾ 인터뷰 대상이 편중되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한국인 남편들의 내러티브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뿐만 아니라 떠도는 소문을 사실로 환원시킨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며 인터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II. 필리핀 스토어의 개관

1. 구도심에 자리한 ‘이방인들’의 공간

전주지역에는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가 있다.¹²⁾ 두 곳 모두 카라메¹³⁾와 마리아라는 필리핀 이주여성에 의해 운영되며 구도심¹⁴⁾에 있다. 애초부터 필리핀 스토어가 구도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두 곳 모두 도심의 외곽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마리아의 스토어는 팔복동 공단 내에, 카라메의 스토어는 전주교육대학교 부근 동서학동에서 개점하였다. 두 곳 모두 도심 외곽에서 개점한 것은 임대료가 저렴해서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곽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결국, 두 스토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마리아와 카라메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구도심 지역은 지리적으로 여전히 전주

11) 그러나 현지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리핀 이주자 집단 내부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국인 남편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매우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룬다.

12) 익산에는 이보다 많은 세 곳의 필리핀 스토어가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작도 전주지역보다 앞선다. 이는 익산지역에 공장이 많아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수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존의 필리핀 공동체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마리아와의 면담 / 2009년 11월 21일).

13)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인명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다.

14) 카라메와 마리아의 스토어는 100m 남짓의 거리를 두고 상호 인접해 있다.

의 중심부이고 관내에서 운영되는 대다수의 버스 노선이 관통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동시간의 단축과 버스 환승 횟수의 최소화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완주지역의 3공단과 상관이나 삼례 등 전주와 인접한 지역에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는 전주의 지리적 중심부인 구도심은 최적의 위치이다. 장수나 임실, 정읍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도 구도심은 수월한 접근성을 제공해 주는 위치이다.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 금융기관 역시 구도심 지역이 지닌 지리적 이점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은 도심을 벗어난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단순할 수밖에 없고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제한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쇼핑과 은행 업무, 도심의 화려한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한다. 구도심에 있는 필리핀 스토어를 방문함으로써 이러한 일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용자는 필리핀 스토어에 들르기 전후에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주변 쇼핑상가에서 눈요기하고, 공과금 납부와 같은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필리핀 스토어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와 동행할 수 있어 정보 공유는 물론 정서적 유대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하여 필리핀 스토어의 구도심으로 이전은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정이었다. 더욱이 새로 이전한 장소는 도심 주변부가 개발됨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원주민이 빠져나가 버린 자리였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임대료도 저렴한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공간이 연이어 들어선 것이다.

2. 마리아 스토어

마리아 스토어가 처음 개점한 곳은 팔복동 공단지였다. 도시의 외진 곳에 있는 공단의 음산하고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라고는 딱히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연구자가 처음으로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찾아가 보니 간판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였다. 골목길 안쪽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좀처럼 찾아내기 힘든 지하 공간이었다. 주변 환경이 척박하고 밤에는 인적도 드문 곳이어서 마치 우범지역과 같은 인상을 받게 하는 곳이었다.

구도심으로 이전한 현재의 마리아의 스토어는 약 50-60평가량의 꽤 널찍한 규모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 오래된 건물이고 건물주가 내부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림 1〉 구 마리아 스토어 입구 전경



배관시설이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동업자 페드로는 비용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내부 도색도 하지 않은 어두침침한 실내 분위기는 쾌적함과 거리가 멀다. 특히 내부의 화장실 냄새가 실내 전체로 퍼져 있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고역을 감내해야만 한다.

밖으로 드러난 전기 배선은 한눈에 봐도 합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천정의 부분적인 누수도 자주 일어난다.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건물주가 시급히 조치해주어야 할 문제지만 대수롭지 않게 방치되고 있다. 언젠가 후문 출입구 바로 앞쪽의 누수가 심해서 페드로가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구했고,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건물주가 설비업자 한 명을 고용해서 조치해 준 적이 있다. 이때 연구자가 사고에 취약한 실내 환경에 대해 넌지시 언급하자 건물주는 “시내에 이 정도로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재네들(마리아와 페드로)한테는 감지덕지하지”라고 대응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출입문을 열면 좌측에 인터넷과 화상채팅이 가능한 컴퓨터 한 대와 게시판이 있다. 그 옆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필리핀 이주여성 리사의 방이 있으며 방문 앞에 노래방 기기 한 대가 비치되어 있다. 출입문 우측으로는 동행한 아이들을 위한 쪽방과 당구대가 한 개 놓여 있고 그 너머로 다트(dart)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출입문 정면에는 식사와 음주를 즐기기 위한 테이블이 놓여 있다.

〈그림 2〉 마리아 스토어 입구 전경, 백색 점선이 입구



그 좌측에는 상품 진열대가 우측에는 계산대가 마련되어 있고, 주방은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출입문 우측의 쪽방은 주로 마리아의 두 자녀가 이용자가 동행한 아이들과 놀거나 잠을 자는 곳으로 활용된다. 출입문 좌측의 쪽방에는 리사가 독사에 물려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화장품을 팔고 있다. 이 방은 리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페드로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리사의 방에는 간이침대와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지만, 진열 상품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리사는 화장품 판매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손발톱을 가꾸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화장품 구매를 권유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화장품을 사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생계를 해결할 만큼은 아니다.

스토어에 비치해놓은 판매 물품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종류는 다양하다. 맥주, 음료수, 비스킷, 빵, 간단한 양념과 같이 가공 처리된 식자재, 국제전화카드가 주로

〈그림 3〉 마리아 스토어 내부 전경



팔리는 품목이다. 이 물품들은 대개 한국인 중개상을 통해 들어온다. 판매단가는 필리핀 현지와 비교했을 때 최소 세 배에서 일곱 배가 높다. 이용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국의 상품을 소비하며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 하는 대가로 간주한다.¹⁵⁾

1) 마리아

마리아는 올해 29세로 슬하에 두 남매를 둔 국제결혼이주여성이다.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비교적 유창한 편이고 타갈로그어도 완벽하게 한다. 연구자와 인터뷰를 할 때도 때에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구사했다.¹⁶⁾ 마리아는 10여 년 전 현재의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필리핀에서 2년 동안의 동거 이후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 이주 전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넉넉하지

15) 소매가격이 필리핀 현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지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통과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리아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고 주위에서 떠도는 험담과 소문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이때 스토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구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제결혼을 통해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주변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고향을 떠나는 많은 사람을 봤지만, 마리아에게는 그저 주변의 흔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일하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다 보니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왔던 국제결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마리아는 애초에 국제결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딸까지 얻은 후였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과 배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의 남편(44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친구와 동업형태로 소규모의 공사를 하청받아 일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막노동을 하며 품을 판다. 마리아는 현재 남편과 이혼 절차 중이다. 그녀에 따르면 남편이 몇 년 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이 잦으며, 가족에 관한 관심과 배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교제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남편의 과거 행동과 태도는 결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했다. 마리아는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게 된 데에는 자신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자책하고 있다. 힘겨운 생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부담과 짐만 되는 남편의 존재를 애써 참아보려고 했던 것은 이런 자책감 때문이었다.

마리아: 남편은 공사장에서 건설 일을 한다. 친구와 동업으로 하는데 돈은 안 갖다 준다. 필리핀에서 만나서 한국으로 왔을 때까지는 잘해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애도 생기고 나니까 술만 먹고 일도 잘 안 하기 시작했다. 남편한테 맞기도 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 애들도 있었다. 애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남편이 애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 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했었다. [……]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곧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 혼자 힘들지만 이것(필리핀 스토어)도 하고 방과 후 교사도 하니깐 괜찮다.

연구자: 페드로는 어떨까?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던데…….

마리아: 페드로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애들 픽업도 해주고 요리도 해준다.

마리아는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외박,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이전부터 마리아는 가족 생계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공장일과 식당 일을 닦치는 대로 해왔다. 별거 이후에도 궁핍하긴 했으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조금씩 아껴서 저축까지 했고 기백만 원을 모으기도 했다.

마리아가 필리핀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알게 된 페드로라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권유 때문이었다. 페드로는 자신이 일하는 팔복동 공단 내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최초 개업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설득했다. 마리아는 경험을 통하여 익산의 필리핀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페드로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듣고 주변 동료의 격려까지 얻고 난 후에 개점을 결심했다.

2) 동업자 페드로

페드로는 36세의 이주노동자로 한국생활은 올해로 3년째이다. 한국어는 매우 서툴지만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에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18세 때 낳은 아들은 현재 대학에서 금융을 공부하고 있다. 페드로는 장사하는 어머니 때문에 시장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성장환경 탓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았다고 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뛰어나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돈 버는가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마닐라 시장에서 장사하신다. 집도 시장 안에 있다. 어려서부터 봐온 것이 장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익숙하다. 돈 버는 방법을 알고 태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 눈을 조금만 돌리고 살펴보면 돈 버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인생의 반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돈을 벌었다. 미국, 홍콩, 중국 등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외국에서 돈 버는 것도 익숙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 페드로

페드로는 명민하고 사업수완이 좋으며 성실한 이주노동자다. 가정형편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긴 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매우 논리적이다. 해외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한 경험이 있어 고용주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요령 있게 대처하는 비결도 지니고 있다. 페드로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은 족히 되기도 남아 보이는 중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장수와 임실 등지의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도 한다. 부업을 위하여 자동차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사꾼이다.

페드로는 필리핀 스토어에서 판매할 물건을 유통업체에서 살 때 자신이 보파리 장사를 해서 판매할 물품까지 추가로 주문한다. 이렇게 확보한 물건을 팔기 위하여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홍보까지 병행한다. 필리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필리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한번 들러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자연스럽게 권유한다.¹⁷⁾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야근에 빠지는 경우가 없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도 수당을 많이 주는 야근을 꼭 한다. 야근이 끝나면 필리핀 스토어에 들러 요리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한다. 이렇듯 타고난 수완과 성실성을 가지고 일관된 생활을 꾸려온 덕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넉넉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3) 동업과 스토어의 개점

마리아가 팔복동 공단 내에 스토어를 처음 개점한 때가 2008년 초이다. 약 1년 반 후인 2009년 9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초기 비용은 남편 몰래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했다. 부부간에 불화를 겪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스토어를 개점하면서 남편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개점을 권유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팔복동 공단에서 프레스머신을 다루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페드로였다. 페드로는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필요에 따라서 일을 거들어주었고 조언도 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스토어 주인과 손님에서 협력자로 발전한다. 마카오와 홍콩에서 요리사로 일했고 선상 요리사로서 일한 경력이 있는 페드로는 스토어에서 팔 음식을 만들었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티를 거들어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페드로가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였다. 하지만 페드로의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페드로도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면 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페드로가 스토어를 방문하는 날은 주로 주말이나 일이 없는 평일에 한정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사업 경험이 없는 마리아는 페드로에게 의존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갔다.

사업수완이 좋고 마리아의 고충을 꿰뚫고 있는 페드로는 결국 동업을 제안하게 된다. 여자 혼자 힘겹게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도 측은하게 느껴졌고, 동업형태로 스토어 운영에 끼어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활용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익도 꽤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¹⁸⁾

17) 어느 이주노동자에 따르면 실제로 페드로로부터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연구자: 매일같이 와서 일을 돕는 걸 보면 마리아와 동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드로: 맞다. 팔복동에 있을 때부터 파트너십을 가졌다. 나와 내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고 친척(relatives)이라고 생각한다. [……] 마리아 혼자 힘들어했다. 마리아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 아닌가. [……] 나도 돈을 더(extra) 벌고 싶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

연구자: 그러면 수익금도 똑같이 나눠서…….

페드로: ……서로를 신뢰한다. 문제없다. 나는 마리아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그녀에게는 장난꾸러기 두 아이가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 당신(연구자)도 마리아의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마리아 남편에게 필리핀으로 가서 사업을 해보라고 조언해준 적도 있다.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연구자: 페드로한테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돈이 많이 들었는가?

마리아: 500만 원씩 투자했다.

연구자: 팔복동에 있을 때부터 동업을 시작했나?

마리아: 그렇다.

연구자: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돈을 들어서 시작했나?

마리아: 그때는 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연구자: 누가? 페드로가?

마리아: 그렇다. 여기 옆에 1층으로 올 때 500만 원씩 냈다.

연구자: 그러면 팔복동에 있을 때는 동업한 것이 아니지 않나?

마리아: 돈은 내지 않았지만 동업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동업과 같다.

두 사람은 구도심에 적당한 동업 장소를 찾아냈다. 그러나 새로이 이전할 장소는 파티를 열기에 공간이 협소했다. 대신 넉넉한 공간을 갖춘 장소를 구하기 전까지 팔복동과 경원동의 스토어를 병행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 저녁에 열리는 파티는 수입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파티가 있는 날에만 팔복동의 스토어를 이용하려는 영업 전략이었다. 그러나 파티 장소 때문에 스토어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결국, 구도심에 있으면서 임대료(월 60만 원)도

18) 페드로는 마리아와 동업을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말해주었다. 연구자가 카라메 스토어에서 익히 들은 바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고, 주변의 소문에 페드로나 마리아나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선볼리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야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었다.

과다하지 않고 파티를 위한 넓은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게 되어 5개월 후인 9월에는 팔복동의 스토어와 임시로 이전한 스토어를 처분한 후 현재 위치로 스토어를 옮길 수 있었다.

3. 카라메 스토어

카라메의 스토어는 10평가량의 규모로 마리아의 스토어에 비하면 협소한 편이다. 하지만 1층에 있으므로 마리아 스토어보다는 쾌적한 분위기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과 우측에 상품 진열대가 놓여 있고 바로 정면에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 너머로는 조그만 주방이 있는데 마리아 스토어의 주방과 달리 한두 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비좁다. 카라메 스토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우측 벽면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사진이다. 대부분 다문화가정 행사와 모임 때 찍은 개인과 단체 사진이다.

카라메 스토어 역시 노래방 기계가 한 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춤을 출 만큼 공간이 너른 것도 아니어서 노래를 부를 때도 가만히 앉거나 선 채로 부른다. 내부 공간의 반은 테이블과 의자로 채워져 있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고 주로 식사와 대화를 위해 사용된다. 판매 물품은 마리아의 스토어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비치해놓은 상품의 양은 마리아의 스토어에 비해 적다.

〈그림 4〉 카라메 스토어 외부 전경(좌)과 내부(우)



1) 카라메

카라메는 51세의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서 마리아와는 달리 남편의 도움으로 스토어를 개점하였다. 카라메는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생계가 막막해지자 한국인과의 재혼을 선택하였다. 한국어 구사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외모가 밍상이고 재혼을 할 처지였기 때문에 생계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인 남편의 조건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카메라는 역시 재혼인 현재의 남편(58세)이 폭력과 음주를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카라메는 고학력자가 아니고 필리핀에서 가사와 농사일 이외에는 특정 직업을 가져 본 경험도 없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강사로 일하며 본국에 송금하는 여타의 필리핀 이주여성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다. 성격도 적극적인 편이 아니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필리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글 교육이나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접했지만, 친구를 따라 몇 번 나가다가 그만두곤 했다. 남편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접하고 나서 카라메가 교육에 참석하는 일을 삼가도록 다그쳤기 때문이다.

카라메는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장벽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친구로부터 익산에 필리핀 스토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방문빈도가 늘어나 나중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들르는 곳이 되었다. 카라메는 스토어를 이용하면서 비로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남편과 한국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향(필리핀)”사람을 만나고 필리핀 음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스토어에 있는 동안에는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고, 이주자가 아닌 필리핀 사람 그대로인 것” 같았다. 카라메는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필리핀 스토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익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문제였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전주에도 필리핀 스토어가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졌다.

카라메는 익산의 필리핀 스토어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전주에 스토어를 개점하면 돈벌이가 꽤 될 것이라며 남편을 설득했다. 남편이 매사에 호의적이진 않아도 가게에 보탬이 될 일이라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확신했다. 결국, 남편은 가게를 여는 데 동의했고 비용도 대주었다. 현재의 스토어 자리를 알아봐 준 것도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스토어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다. 스토어 운영은 전적으로 카라메의 몫으로 맡겨져 있고 남편은 본업인 막노동에 전념하고 있다.

2) 카라메 스토어의 개점

카라메의 스토어는 오거리 광장에서 맞은편 전주가톨릭센터로 이어지는 노상의 오른쪽에 있다. 카라메의 스토어는 마리아의 스토어보다 1년 정도가 앞선 2007년에 개점되었다. 전주지역에서는 최초였다. 처음 개점 당시의 위치는 동서학동의 전주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부근이었다.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용자 수도 많고 장사도 잘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카라메 역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는 점을 깨닫고 2008년 11월 경 현재 위치로 스토어를 이전하였다. 장소는 이전보다 협소했지만, 마리아 스토어와 달리 카라메 스토어는 파티¹⁹⁾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높지 않은 임대료(월 30만 원)와 지리적 이점을 생각하면 임대료를 더 얹어주고서라도 옮겨가야 할 편이었다.

연구자: 어떻게 해서 여기로 스토어를 옮겼나?

카라메: 돈 벌려고(웃음).

연구자: 여기로 와서 장사가 더 잘되나?

카라메: 동서학동에 있을 때도 장사가 잘 됐다. 남편이 시내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왔다. 거기(동서학동)는 동네가 안 좋았다. 여기는 버스 타기도 편하고 좋다.

연구자: 사람들도 좋아하나?

카라메: 좋아한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나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좋다.

연구자: 그런데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이런 좋은 자리도 알아봐 주고…….

카라메: …….

연구자: 월세가 훨씬 비싸지 않은가?

카라메: 똑같다. 차이가 별로 없다.

연구자: 카라메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오래되었나?

리따(이주여성): 4년 정도, 5년 정도……. 좋은 사람이다.

연구자: 이 가게가 예전에 동서학동에 있을 때도 자주 다녔나?

리따: 지금보다 많이 갔었다. 집이 평화동이어서 가까웠다.

연구자: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나?

이따: 그렇다. 왜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익산까지 갔는데 전주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렸다.

19) 이들이 말하는 파티란 생일파티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파티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규모와 목적이 없이 음주와 노래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와서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자: 그래도 시내가 더 멀어서 다니기가 불편하겠다.

리따: ……아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버스비는 똑같다.

전주와 인근에 사는 필리핀인들은 카라메 스토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익산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갈 아타야 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교통비 부담도 있었다. 전주에 필리핀 스토어가 생기자 익산으로 다니던 고객이 몰렸고 익산이 멀어 가지 못하던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 카라메 스토어가 개점하면서 기존의 수요와 잠재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 시키게 된 것이다.

4. 마리아 스토어 대(對) 카라메 스토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스토어의 개점과 이전은 그 과정과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스토어는 기존의 필리핀 스토어를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스토어의 운영방식을 모방하고, 일정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확인한 후에 개점했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구도심으로 옮겨왔다. 개점과 이전의 과정을 포함해서 두 스토어는 많은 점에서 유사한 특징과 기능을 공유한다. 무엇보다 필리핀 스토어라는 명칭 자체가 말해주듯이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필리핀 음식과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공간이라는 점이 그렇고, 모국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며 필리핀노 사이의 개별적·집단적 교류를 매개하여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한다는 점도 그렇다. 하지만 유사하게 공유하는 특징과 기능뿐만 아니라 두 스토어 간의 이질적인 차이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1) 이용자 층위의 구분과 영업주의 경쟁 관계

필리핀 스토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국제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필리핀 남성), 필리핀 유학생,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다. 하지만 각각의 필리핀 스토어를 이용하는 층위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먼저 마리아의 스토어는 개점 당시부터 이주노동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 운영하려는 영업 전략을 쓰고 있었다. 팔복동 공단 지역에서 근무하는 페드로가 이주노동자의 오락 공간의 필요를 체감하고 있었고, 마리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반면 카라메의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자 일반을 고객층으로 삼으며 특정 표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연구자: 처음에 무엇 때문에 팔복동에 스토어를 오픈했나? 그곳에 가봤는데 어두운 분위기더라. 임대료?

마리아: 팔복동에 일하는 사람들(필리핀 이주노동자)이 많이 있지 않나.

연구자: 3공단(원주 봉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나?

마리아: 거긴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다. 지금도 3공단은 사람들이 많이 해고됐다.

연구자: 그러면 임대료는 아니고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팔복동에 오픈한 건가?

마리아: 그렇다. 그 사람들은 일 안 하는 날에는 심심하다. 가게 하기 전에 페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전주에도 (익산 필리핀 스토어의 주인인) 레야처럼 장사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자: 아……. 페드로가 팔복동에서 일하니까…….

마리아: 페드로하고 친구들이 레야네 스토어에 많이 갔다. 그런데 익산 말고 전주에 있으면 더 좋지 않나.

두 스토어는 고객층이 다른 까닭에 공간 구성과 활용방식 그리고 영업 전략이 다르다. 마리아의 스토어는 파티가 가능한 규모의 공간을 갖추고 있고 당구대, 다트, 노래방 등 오락 기구도 비치해 두고 있다. 하지만 카라메의 스토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간의 규모와 무관하게 생일파티 이외에는 유흥을 위한 파티는 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두 스토어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물론 두 곳을 왕래하며 구분 없이 이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오락과 유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리아의 스토어로 몰린다. 두 스토어의 이용자와 특징적인 활동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마리아 스토어와 카라메 스토어의 이용자와 특징적 활동 비교

구분	마리아(29세) 스토어	카라메(51세) 스토어
장소	지하 1층(외부에서의 식별제한)	지상 1층(외부 노출)
이용자	국제결혼이주여성 = 이주노동자 > 필리핀 유학생	국제결혼이주여성 > 한국인 남편 > 이주노동자
공간에서의 행위와 활동	1. 식사와 담화, 필리핀 상품 구입 2. 오락: 노래, 당구, 다트 3. 음주 4. 미용 서비스와 판매(손발톱 손질, 화장품) 5. 파티: 생일파티와 주말 파티 6. 상호부조와 정보교류 7. 성경공부 ²⁰⁾	1. 식사와 담화, 음주, 필리핀 상품 구입 2. 한국인 남편들의 교류 3. 생일파티 4. 상호부조와 정보교류

필리핀 스토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다. 뻘뻘한 근무 일정으로 잦은 외출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게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해도 같이할 일이 마땅히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필리핀 스토어를 찾아온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대개 주말을 이용해서 필리핀 스토어를 찾아가는데 두 스토어 중에서 영업 전략의 초점이 주말에 맞춰져 있는 마리아 스토어를 주로 선택한다. 필리핀 남성의 스토어 이용이 마리아 스토어에 집중되는 이유는 주말의 파티를 통해서 간단한 유흥과 오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두 스토어를 번갈아 가며 왕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전적으로 카라메 스토어만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카라메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자를 고객으로 삼아 운영되는 필리핀 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남편)의 출입이 필리핀 남성(노동자)의 출입보다 잦다. 한국인 남편은 주로 주말에 스토어를 이용한다. 아내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내 없이 찾아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 스토어를 출입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내를 위해 동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 남편들 사이의 교류를 위함이다. 마리아 스토어는 카라메 스토어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인 남편들은 마리아 스토어를 ‘위험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출입 자체를 금기시한다.

두 스토어의 영업주 사이에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영업주들의 경쟁 관계가 필리핀 이주자 집단 내부의 분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리아 스토어가 개점하기 전에는 마리아와 페드로를 비롯해서 마리아 스토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카라메 스토어의 고객이었다. 하지만 마리아 스토어 개점 이후에는 고객층이 양분되면서 영업 경쟁이 생겨났다. 카라메가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라고 불멘소리를 하거나, “이제 음식은 못 팔게 되었다면서?”라고 비아냥거렸던 걸 보면 영업 경쟁이 불화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쟁 관계는 단순히 두 스토어의 영업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20) 성경공부는 인근 교회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필리핀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이루어진다. 이 선교사는 2006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필리핀 이주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필리핀 스토어도 2008년 12월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통해서였다.

부정적 소문이 유포되고 확산하면서 마리아와 카라메 사이의 경쟁 관계가 스토어를 이용하는 필리피노가 두 스토어를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묵적 경계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 필리피노들은 영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 영업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기준으로 각 스토어를 자유롭게 이용해 왔지만, 영업주 간의 경쟁 관계가 필리핀 이주자들의 갈등 관계로 퍼지고 필리피노들이 서로 경계함으로써 두 스토어의 자유로운 왕래가 위축된 것이다.

카라메하고 마리아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카라메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마리아한테 가면 사람들(카라메와 카라메 스토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 안나(이주여성)

저쪽(카라메 스토어)에 가는 사람들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르다(구분돼 있다).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여자를 카라메 스토어에서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저 여자도 과거에는 카라메 스토어 고객이었다. [……] — 페드로

필리피노들은 자신이 왜 특정 스토어를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처럼 얘기하기를 꺼린다. 예를 들어 마리아 스토어보다 카라메 스토어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조용하니까”라고 답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마리아 스토어도 주간에는 파티가 없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주간에는 두 스토어 모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담화 장소로 활용되며 이용자의 수도 많지 않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카라메 스토어를 찾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나는 랜시 스토어에는 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대답하기를 주저하면서) 그냥 가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가?) (역시 꺼리면서) 그냥 사람들의 스타일의 문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은 것처럼 그 가게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여기는 조용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다. (그쪽은 시끄럽다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나는 분쟁이 있는 곳을 싫어한다. 내가 한 얘기가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고……. — 이주노동자 A

나는 성직자이고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경계한다.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이다. 완전히

옳은 쪽은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다 잘 지냈다고 들었다.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묘한 긴장(subtle tension)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 당연하다.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 한다. 소문은 곧 말하는 것이 아닌가?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소문이 문제다. 필리핀 사람들은 누가 잘되면 끌어 내리려고 한다. 소문에도 민감하다. 하지만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똑같다. 한국 사람들도 사람들끼리 소문을 퍼뜨리고 미워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 싸우기까지 한다.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 마누엘(필리핀 기독교 선교사)

이들이 특정 스토어를 선호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은 특정 스토어의 선호는 곧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스토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두 스토어를 중심으로 필리핀 이주자 사이에 일정한 구분 선이 그어져 있지만 스토어를 둘러싼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유대관계에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괜히 ‘입을 놀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정적 소문이란 누가 누구를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 아니고 돈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나, 다른 스토어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더라와 같은 내용이다. 결국, 마리아 스토어의 개점과 이전으로 두 스토어 사이의 영업 경쟁이 발생하자 영업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필리핀 이주자 집단 내부의 분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스토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필리핀 이주자들의 커뮤니티 내에는 ‘연대와 아노미’(Solidarity and Anomie)라는 상반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Parreñas, 2001; 쓰지모토 도시코, 2006에서 재인용).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낭만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 건전과 탈선의 이분법

마리아의 스토어는 지하 1층에 있어 외부에서의 식별이 제한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좁아서 외부 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쳐 가기가 쉽다. 반면 카라메 스토어는 지상 1층에 있고 외부에 필리핀 스토어임을 알리는 문구도 부착되어 있어서 식별이 쉽다. 물론 지상과 지하의 장소 차이가 영업주들의 의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스토어가 이용자들에게 인식되는 방식은 건전(지상) vs. 탈선(지하)의 이분법으로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타나게 된다. 이용자들은 지하 공간을 음습하고 퇴폐적인 행위

를 위한 환경으로 등치 시키고 지상 공간의 스토어를 지하로 옮긴 데에 특정한 의도가 있으리라 의심한다. 이런 상상을 통하여 마리아 스토어를 “가서는 안 되는 곳”, “즐길 사람만 가는 곳”으로 간주한다. 결국 “탈선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낙인찍는다. 특히 이와 같은 낙인찍기에 적극적인 것은 한국인 남편들이다.

저쪽 지하 가게(마리아 스토어)는 사교라면 여기는 대화를 위한 공간이다. 두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두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구분된 편이다. [……] (인상을 쓰면서) 저쪽 가게는 문제가 많다. 한국 남편들한테도 아내가 저쪽 가게를 가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다. 여기(카라메 스토어)에 온다면 말리지 않는다. 나도 아내한테 절대 저기 가면 안 된다고 단속한다. — 한국인 남편 H

아내는 일주일에 4-5차례씩 이곳을 방문한다. 지하(카라메) 가게에 갈 때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로 허락을 받고 간다. 본인도 그곳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편인 내가 그곳을 싫어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지하 가게에서는 남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진다. 익산의 필리핀 스토어의 경우 이주여성 90%가 이주노동자 애인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이혼율도 높아질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필리핀 여자 중 이혼한 사람이 많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알고 있는 사례들이다. 지하 가게 사장도 보라. 이혼해서 이주노동자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하 가게는 토요일마다 파티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경찰들도 조사 때문에 종종 가게에 들른다. — 한국인 남편 B

한국인 남편들은 두 스토어를 건전과 퇴폐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주로 재혼이나 늦은 나이의 만혼을 통해 어렵사리 가정을 꾸린 경우가 많으므로 아내의 외도로 인한 가정의 붕괴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하나같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반면 카라메 스토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마리아 스토어의 두 영업주인 마리아와 페드로는 한국인 남편들의 이런 해석과 태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한다.

연구자: 남자들이 이곳에 더 많이 온다. 거기는 파티가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인가?
페드로: 아니다. 거기도 파티 한다. 노래방도 있다.

연구자: 노래방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페드로: 그 사람들이 영리하기 때문이다. 몰래 한다. 컴퓨터에 ‘깜플록’도 있다.

연구자: 그게 뭐가?

페드로: 일종의 컴퓨터로 섹스하는 것. 그러니까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아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왜 너희는 깜플록이 없냐고 말이다. 그럼 나는 말한다.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되 절대 포르노 같은 건 내려받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 사람들이 매춘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건 여자를 파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대신 손님들끼리 이 가게에서 만나고 밖에 나가서 성관계를 맺는 예는 있을 것이다. 경찰이 그걸 의심하고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매춘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다. 저쪽 가게는 벌써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의(alert)하라고 이미 당부를 해놓았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내가 거기에 개입된 게 없는데 주의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서 상업적인 섹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합법이나 불법이냐가 아니라 공적인 관용(public toleration)의 문제이다(Boggs *et al.*, 1984: 149). 탈선의 온상으로 간주하는 마리아 스토어가 상업적 섹스 내지는 혼외 성관계를 매개하는 공간인지 아닌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마리아 스토어를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로 한국인 남편의 시각이고, 이들의 시각은 필리피노의 성관계(가능성)를 공적 관용의 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들은 사회적 편견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렵사리 가정을 꾸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필리핀 남성과의 성적 교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공산이 매우 높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리아 스토어는 일상적으로 접근할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관공서나 경찰에 신고해서 마리아 스토어를 “제거”하려는 의도도 감추지 않는다. “저런 게 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문화니까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그런 동정심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없애야 할” 할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Ⅲ. 사회적 연망의 형성과 확장

특정 민족 집단 내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연망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착지

에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자와 주변인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정착지의 구조적 조건은 이주자에게 일정한 전략의 동원을 강제하기 마련이고 민족 연망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이주자의 삶과 적응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Hagan and Ebaugh, 2003; Hurh and Kim, 1990; Min, 1992; Hirschman, 2004; Bankston and Zhou, 2000).²¹⁾ 이주라는 초국가적인 현상을 근래에 목격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서도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이 적응기제로 활용되는 맥락과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가인 필리핀 출신의 이주자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연망을 형성시켜 적응 전략으로 동원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²²⁾ 이러한 현상이 왜 필리핀 출신의 이주자 사이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문화적 연속성(cultural continuity)’(Hirschman, 2004)을 띠고 정착지에서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권중화, 2004; 변현진, 2004; 임안나, 2005 참조).²³⁾

이주민은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교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주 사회에서의 종교적 실천은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Hurh and Kim, 1990)이기도 하다.²⁴⁾ 연구자가 만나본 필리피노(Filipino, 필리핀인)²⁵⁾의 사례에서도 가톨릭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필리핀 이주자의 민족적 연망 형성을 매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필리핀 이주자의 사회적 연망 형성에 있어 필리핀 스토어와 종교가 어떻게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필리핀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집단적

21) 이주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고전적인 접근은 이주자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을 문화적/심리적 측면에 국한해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종교시설의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인 역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왔다(Hirschman, 2004).

22) 권중화(2004)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조직을 포함하여 약 45개의 공식적인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23)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나 종교를 매개로 한 집단적 실천을 다룬다.

24) Hagan and Helen (2003)은 과테말라의 오순절교회 공동체 사례를 통해 종교적 실천과 제도가 이주의 결정에서 이주 후 정착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논증하면서 이주연구에서 문화적 맥락을 중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 필리핀 여성을 지칭하는 필리피나(Filipina)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필리피노로 통칭한다. 또한, 문맥에 따라 이주자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이주자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형태의 관계 맺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 연망을 형성하는 과정과 다른 수준의 관계 맺기 양상이 필리핀 스토어와 어떠한 함수관계를 지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주현상의 단면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민족 연망의 형성과 종교의 일차적인 매개

전주중앙성당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에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미사가 열린다.²⁶⁾ 외국인 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필리핀 이주자를 위한 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사 참석자의 대다수가 필리핀 이주자들로 이루어진다. 국적별 이주자 중에서 가톨릭 신자이면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성당 미사에 참석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이다. 무엇보다 필리핀 이주자를 위한 영어 미사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 모국의 성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에 임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장수성당의 미사도 참여관찰한 바가 있는데 미사의 분위기는 자녀들 때문에 대체로 어수선했지만, 으레 있는 일로 생각하는 듯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 없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역시 어수선했던 분위기에 신경 쓰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미사를 집전하기에 바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성당에 참석한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경건한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성당에 가는 것 자체가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종교적 소명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 이주자의 이와 같은 종교적 태도와 실천은 사회적 동기와 결부되어 민족 연망 형성의 일차적인 계기로 이어진다.²⁷⁾

성당을 통해 기존 이주자들과 뉴커머의 연망이 형성(Hagan and Ebaugh, 2003)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당은 일종의 ‘리셉션 센터(reception center)’(Hurh and Kim,

26) 외국인 미사는 농촌 지역 예를 들어 임실과 장수에서는 격주 단위로 열리고, 전주와 익산과 같이 참여자 수가 많은 지역은 매주 열린다. 영어로 미사를 집전할 사제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사 시간은 14:30으로 같다.

27) 성당 이외에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역시 연망 형성의 매개로 작용한다. 하지만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망을 지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연망 형성도 국제결혼이주여성들 간의 연망 형성에만 기여한다. 반면, 천주교 미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이므로 연망 형성의 1차적인 매개로 기능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기까지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간의 연망을 형성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990)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실천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가 민족 집단에 있어서 정신적인 준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임승연, 2010), 종교적 동기 외에도 사회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평소에 자주 볼 수 없는 사람과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가 있다. 같은 필리핀 이주자라는 동질감 때문에 친분도 급속하게 만들어지며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의지를 하게 된다.

연구자가 면담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도 처음 한국에 와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당시에는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성당의 소개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서 성당에 나오게 되었고 외국인을 위한 미사가 따로 열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남편도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당에 데려다주는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뻐던 것은 신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만약 외국인 미사가 별도로 열리지 않아서 성당에 와도 필리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오는 일이 여의치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당에 나오려고 하는 건 일요일만이라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리핀 이주자는 일차적으로 성당이라는 종교적 공간을 통해서 동족 간의 연망을 형성한다. 모국에서부터 유지해오던 종교적 실천과 믿음을 이주 사회에서도 관성적으로 지속시켜가려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 이를 적응기제로 활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성당을 중심으로 한 연망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필리핀 이주자의 민족 연망 형성 과정이나 결사체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집단적 연대의 과정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권종화, 2004; 변현진, 2004; 쓰지모토, 2006)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0명가량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익산의 필리핀 공동체²⁸⁾ 결성 역시 성당과 성당 부설의 이

28) 익산 필리핀 공동체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성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친목과 체육행사에 국한되어 있고 모임이 정기적이지 않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는 편이다(익

주노동자 사목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매개로 가능한 일이었고, 전주의 필리핀 스토어 개점 역시 성당을 매개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성당에 나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성당에 나가서 저기 앉아있는 A도 알게 되었고 B도 알게 되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간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건 성당에서 알게 되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성당에서 만난다. 성당에서 한 번 만나면 사람들끼리 계속 연락한다. 나도 성당에 나가면서 많이 있다는 걸 알고 (필리핀 스토어를) 오픈했다. — 카라메

필리핀 스토어는 일차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사업주인 카라메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고객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개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카라메는 성당에서 알게 된 필리핀 이주자와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또 다른 필리핀 이주자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필리핀 스토어를 운영할 구상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마리아의 스토어가 카라메의 스토어와 익산의 필리핀 스토어를 ‘벤치마킹’하여 추가로 개점하자 필리핀 이주자의 관계 맺기는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필리핀 스토어의 등장과 ‘리셉션 센터(reception center)’의 이원화

필리핀 스토어의 등장이 기존의 관계 맺기의 양상을 변화시킨 것은 필리핀 스토어가 지닌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필리핀 스토어는 상업적 공간(사업주의 입장)이지만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용자의 입장)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다. 마리아의 스토어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의 말에 의하면 필리핀산 제품의 판매단가가 현지보다 적게는 세 배에서 많게는 일곱 배까지 높고 이용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런 점은 스토어를 참여관찰하면서도 느낀 바와 같다.²⁹⁾ 즉, 필리핀 스토어는 필리핀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지만 정작 이용자는 물건의 구매보다는 사회적 교류를 위해 스토어를 이용한다.

산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 면담, 10월 15일).

29) 각각의 필리핀 스토어의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지만, 스토어를 참여관찰 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수익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물품의 판매와 식사 판매 중에서 후자가 수익원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당 역시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당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미사라는 종교적 제례를 매개로 그러한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상성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 반면 필리핀 스토어는 성당과 달리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스토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이 일상성을 띤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필리핀 스토어가 등장한 이후에는 필리핀 스토어가 성당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기능을 흡수하였다.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심심하기 때문이다. 집에 있으면 인터넷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말도 안 통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 여기 오면 필리핀 음식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귀가한다. — 카라메

우리는 대부분이 가톨릭이다. 노동자들도 일하지 않으면 성당에 나온다. C도 원래 나오는데 오늘은 오버타임(추가근무)이어서 나오지 않았다. 물론 성당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라메 스토어가 더 재미있다. — 리사

성당은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필리핀 이주자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매개한다. 단, 필리핀 스토어가 등장한 이후 사회적 교류와 종교적 실천을 위한 공간이 각각 필리핀 스토어와 성당으로 구분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리셉션 센터의 이원화라고 표현해볼 수 있다. 적어도 필리핀 스토어에 오는 사람에 의하면 자신이 성당에 가는 것은 순수하게 종교적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필리핀 스토어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같은 필리핀 이주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일요일에도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성당에서 준비한 다과회나 다른 특별한 부수 행사가 없는 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필리핀 스토어로 향하는 사람이 많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주 초기의 단계에서 성당이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족 간의 연망을 형성한다고 해도 일단 필리핀 스토어의 존재를 알고 나면 필리핀 스토어를 연망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스토어를 참여관찰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³⁰⁾ 메리는

30) 연구자는 2008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이때 면담한 메리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 거주 6개월 차이던 메리는 YMCA가 개설한 한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카라메의 스토

한글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배우던 도중 성당에서 외국인 미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스토어의 존재는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에 의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필리핀 스토어를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성당이나 문화교육 교육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 또한, 필리핀 스토어의 소재를 확인하고 나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필리핀 스토어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기존의 이주자 연구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관계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연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하나의 적응 전략으로 활용한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세력화를 위해 조직화를 피하는 사례에 관한 연구는 확인되지만,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과 구체적인 맥락은 주된 학문적 관심사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필리핀 스토어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공간적 매개로 기능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필리핀 스토어의 사회적 기능은 종교시설이 지닌 사회적 기능과 결부되어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증폭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관계 맺기의 양상이 바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상호 관계이다.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관계가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적인 양상은 구직 알선³¹⁾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단기간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이 많으므로 더욱 풍부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규범의 체득 정도도 앞서 있다. 마리아와 카라메는 이러한 점을 방증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를 방문하자 메리가 먼저 연구자를 알아보게 되어 필리핀 스토어와 관련한 경험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 31) 구직 알선 이외에도 필리핀 스토어가 국제결혼 알선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 알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미혼의 한국남자가 필리핀 스토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토어를 방문한다. 결혼중개소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직접 사람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신뢰성이 높다. 한 번의 방문으로는 부족하니까 지속해서 스토어를 방문하면서 신봉감을 몰색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한 번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찾아와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취업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고용지원센터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한테 알아보기도 해서 연결해줬다. [……]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올 초의 이야기다. 그때 한국경제가 좋지 않았다. 3공단의 공장들도 문을 닫았고 이주노동자들은 돈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필리핀 사람 50명이 공장의 부도로 그런 피해를 보았다. — 마리아

당시 마리아는 스토어가 위치한 건물 3층의 “한국인 사장님”을 통해 해당 이주노동자의 구직을 알선해 주었다.³²⁾ 마리아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주노동자의 구직을 도와준 경험이 있고 주변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취업과 체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위의 사례처럼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구직을 성사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마리아는 구직을 알선하거나 돕는다는 이유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적도 있다고 한다. 마리아는 구직을 알선해 주고 한 사람당 2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당시 마리아는 5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구직 알선을 도왔고 실제 성공한 것은 한 사람뿐이었음에도 나머지 4명까지 모두 성사시켜서 총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인 적이 있다. 소문은 더 커져서 급기야는 알선 수수료로 챙긴 1,000만 원의 돈으로 스토어를 개점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5명의 구직을 도와준 적이 있다. 모두 성공하진 못했고 한 사람만 성공시켰다. 그런데 내가 (구직을) 연결해준 사람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내가 200만 원을 알선료로 받았다고 소문이 났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도 이후에 결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역시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다. 결국 나는 같은 필리핀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신 1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챙겨 먹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가게도 그 알선료를 받아 챙겨서 열었다고 소문이 났다. 이곳은 월세도 비쌀 텐데 내가 어떻게 가게를 개점했겠냐는 것이다. — 마리아

32) 구직을 도와준 한국인은 마리아가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로서 현재 위치로 스토어를 이전한 이후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인 사장은 마리아 학생의 학부형인 셈인데, 만나면 예외 없이 영어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도움을 주는 대신 영어를 익히는 일종의 교환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하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을 원할 때 마리아와 카라메에게 연락한다. 현지조사를 하는 중에도 이러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평일 오후 마리아 스토어에 있었는데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파주에서 1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채로 해고되어 다음 직장을 알아봐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리아와 카라메에게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전화한 일이었다고 한다. 마리아는 아는 한국인에게 전화해서 부탁해놓은 상태였고, 안되면 차선책으로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구직자와 같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카라메는 한국말이 마리아만큼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동행하며 구직을 도울 수는 없지만, 마리아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을 알고 있다. 한국인 남편의 스토어 이용이 카라메 스토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인 남편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피노를 돕는 데 소극적이지 않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없으므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남편에게 직접 구직 알선을 부탁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카라메를 비롯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이 둘 사이를 매개하면서 구직을 돕는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잘리는(해고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저 사람들(이주노동자) 처지에서는 막막할 것이다. 돈 벌러 왔는데 잘리면 어딜 가겠는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한 폰이라도 벌어야 하는 게 저 친구들이다. [……] 지난 4월이었던가 이 사람(아내)이 일할 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자기 친구가 잘려서 갈 데가 없는데 다고 하더라. 난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받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나중에는 내 친구가 하는 판넬(전기 컨트롤 박스)공장에 취직시켜 줬다. 그런데 보니까 불법(미등록)이더라. 이거 괜히 친구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공장이 평화동 구석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 대신 돈은 많이 못 준다고 했다. (구직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나?) 그럴 것이다. 저 친구들이 여기 찾아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집 주인(카라메)하고 박형순 씨라고 다문화가정 모임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둘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려고 하더라. — 한국인 남편 C

가톨릭센터와 고용센터(employment center, 고용지원센터를 의미)는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제일 빠른 게 여기(카라메 스토어)에 와서 애

기하는 거다. 카라메는 한국 친구가 많아서 도움을 많이 준다. 필리핀 여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카라메 말고 다른 필리핀 여성도 구직을 도와준다는 건가?) 그렇다. 남편들이 한국 사람이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한국 사람이니까 안 좋고 필리핀 사람이니까 좋다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다. [……] 돈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 친구 중 한 명도 카라메의 도움으로 임신에서 일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No fee). — 빠드레스(이주노동자)

빠드레스는 자기가 아는 한 구직 알선료를 받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카라메가 전문적으로 구직 알선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한다. 왜냐면 카라메 말고도 스토어를 찾아오는 다른 필리핀 이주여성을 통해서 구직 알선을 받기도 하고 구직정보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카라메가 독점적으로 구직 알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빠드레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알선료를 받는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주목할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카라메와 마리아를 비롯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을 포함한 한국인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주노동자의 구직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마리아와 페드로의 동업 관계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매우 독특한 관계 맺기의 유형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동업은 법적 지위와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관계이다. 페드로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법률상의 시민권자이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페드로는 마리아의 법적 지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마리아는 페드로의 돈과 사업수완을 동업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결혼이주성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각자가 지닌 사회문화적 자원과 법적 신분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호부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4. KAMPI-KO

필리핀 스토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은 성당과 달리 평일과 주말 그리고 낮과 밤에 무관하게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민족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마리아의 스토어를 중심으로 결성된 캄삐꼬(KAMPI-KO)³³⁾는 민족 집

단의 유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의 형제애와 자매애를 의미하는 KAMPI-KO는 2008년 9월에 결성된 것으로 일종의 신용결사체(credit 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캄삐코는 이주노동자의 참여로만 조직되었다가 이후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동참하게 되었다. 캄삐코는 회장(President)과 부회장(Vice-President), 재정을 다루는 총무(Treasurer)와 홍보를 담당하는 PRO(Public Relations Officer), 그리고 나머지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는 마리아의 스토어를 참여관찰 하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약 20명가량의 회원이 모였고 회의에 앞서 대표자가 나와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등록 명부상에는 총 45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장인 페드로가 출석체크를 하고 있었다. 까달로그어로 진행된 회의는 약 15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선출 연기였다. 페드로에게 회의내용을 물어보니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선출을 강행할지 말지를 논의했고 선출 연기가 중론이었다는 것이다.

캄삐코의 회원은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누적된 회비 일부는 캄삐코의 단체행사 예를 들면, 야유회나 체육대회 행사 진행을 위한 필요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액수는 그대로 누적되어 회원을 위한 대출자금으로 충당된다. 예를 들어 캄삐코 회원이 부안으로 야유회를 갔을 때 캄삐코에서 관광버스 전세 비용을 충당해 줌으로써 야유회 참가에 따른 개인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필리피노가 즐기는 농구 게임에서는 캄삐코가 간단한 음료수와 스낵을 준비해서 행사의 구색을 갖추도록 한다. 대출은 회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는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어느 이주노동자가 지난달 임금이 체불되어 송금할 돈과 생활비가 없는 경우, 캄삐코로부터 최대 100만 원을 대출받아 당장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러한 회비 납부와 지출방식은 소위 ‘RoSCAS’라고 불리는 ‘윤번식 저축 및 신용결사체(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이창호, 2007)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RoSCAS는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회비를 내고 각 회원이 정해진 차례로 일정한 목돈을 받는다.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면 목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회비를 내는 비공식적인 저축의 형태로서, 은행이 꺼리는 소규모의 신용을 매개로 운영되는 것이 RoSCAS이다(Ardener, 1964). 캄삐코는 필리핀 스토어라는 공간적 매개에 의해서 결성된 신용결사체이다.

33) KAMPIKO의 KAM은 형제와 자매애를 의미하는 까달로그어의 KAPATIRAN (brother/sisterhood) 과 관형격 조사인 NG(of), 그리고 노동자를 의미하는 MANGGAGA (workers)와 둘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는 WANG (more than one)에서 이니셜만 표기한 것이고, PIKO는 PILIPINO SA(in) KOREA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그림 5> 캄비코 입회지원서 양식



KAMPI-KO

Kapalaran ng Mang-gagawang Pilipino sa Korea
Foreigner's Mart* Jeonju-si, Wansangu, Kyungwondong, 3GA-35-2 Bonji
E-mail Address: kampi_ko@yahoo.com
Friendster Address: kampi_ko@yahoo.com

Form 1

MEMBERSHIP FORM

I. PERSONAL INFORMATION

Surname : _____ M.I _____ Given Name _____
Nickname : _____ Sex : F (___) M (___)
Birthday : _____ Marital Status : _____
Contact Person (Philippines)/ CP # : _____
Address (Philippines) : _____

II. OTHER INFORMATION

Alien Card No.: _____ Passport No.: _____
Company Name : _____
Company Address : _____

Home Address : _____

Contact Person / CP # (Korea) : _____
No. of Years Stay in Korea : Years (___) Months (___)
Cell Phone # : _____ E-mail Add: _____
Date of Membership : _____

Initial Monthly Due _____ at the month of _____.

New Member

Recommending Member

Approved By:: _____

President
Kampi-Ko

Date of approval: _____

Secretary: _____

Treasurer: _____

〈그림 6〉 캄비코 입회 서약서



KAMPI-KO

Kapatiran ng Mang-gagawang Pilipino sa Korea
Foreigner's Mart' Jeonju-si, Wansangu, Kyungwondong, 3GA-3S-2 Bonji
E-mail Address: kampi_ko@yahoo.com
Friendster Address: kampi_ko@yahoo.com

Form 2

Swear Statement of Newly Member

Statement below is *Article III Section 8* stat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Benefits of Members, and Rules for Accepting New Memb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 a. Regularly attending general meetings and emergency meetings.
- b. Joining every activities and programs of the Organization.
- c. Promptly paying the monthly dues.

Benefits of Members:

- a. Opportunity to join every activities, meetings and parties and happy moments of the Organization.
- b. Opportunity to loan from the cooperative.
- c. Withdraw the total accumulated of its contribution from the cooperative.

Rules for Accepting New Members:

- a. Filipino nationality.
- b. Know, long friend, and recommended by a member.
- c. Willing to help the co-Filipinos and willing to participate in every activities and programs of the Organization.
- d. Willing to pay the monthly dues.
- e.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1 – Application Form) properly at with the approved of the president.
- f. Signing and willingly observe the Swear Statement of Newly Member (Form 2).It contains the Article I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Organization pertain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benefits, and rules for accepting new members.
- a. Paying the initial monthly dues upon accepting and approval of the application

I swear that I will follow the rules and do my obligation as stated above.

New Member

Recommending Member

President
Kampi-Ko

신용결사체는 이주자의 비공식적 적응 전략 중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로서, 이주자의 경제적 주변성이 부과하는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Graves and Graves, 1974). 신용결사체는 새로운 이주사회의 복잡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일종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Bonnett, 1984).

깜삐코에서는 차례로 목돈을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대출받은 돈은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입 당시 보증을 섰던 동료에게 상환책임이 주어진다. 도덕적 규범과 다중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가입 및 운영방식 자체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의 수를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돈을 대출해가는 예도 많지 않다고 한다. 결사체의 운영이 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은 RoSCAS가 강력한 규제들을 통해 회원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Bonnett, 1984)하는 것과 유사하다. 깜삐코는 RoSCAS 처럼 운반식으로 목돈을 받지는 않지만 탈퇴할 때 누적된 납부금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깜삐코의 역사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탈퇴 후 누적 납부금을 받았던 경우는 없었다. 페드로에 따르면 탈퇴 시 누적 납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정하고 의도된 것이었다. 하나는 이주노동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때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모았던 돈에 탈퇴 시 받은 돈을 더해 돌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상환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 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최대 대출금인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예 탈퇴를 통해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내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회원의 탈퇴에 대해서는 아예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깜삐코의 활동은 회원의 의지가 결성 당시보다 저하되어 활동이 점차 위축되었고, 결국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지난 1월에 깜삐코를 해체했다. 워낙 말이 많다. 깜삐코를 두고 마피아라고 하기도 한다. 회비도 모두 되돌려 주었다. 단돈 1원까지도 되돌려 주었다. 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 싫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깜삐코에서 돈을 빌리면 약간의 이자가 붙는다. 이자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 착복하지 않는다. 회원 모두를 위해 쓰인다. 여행(야유회)을 가거나 농구 게임을 하면 그 수익이 쓰인다. 농구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와서 즐기만 하면 된다. 이자수익으로 크지 않은 경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피아라니 말도 안 된다. 이젠 그런 소문들에 너무 지쳤다. — 페드로

페드로는 무성한 소문의 진원지로 한국인을 지목하며 비난한다. 한국인 남편이 마리아 스토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캄삐코까지 싸잡아서 ‘마피아’와 같은 범죄 집단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업자인 마리아와 캄삐코의 부회장을 맡았던 이주노동자 메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난다. 마리아에 따르면 캄삐코의 활동이 호지부지해지면서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내부 구성원의 반목과 질서 때문이었다. 구성원 간의 반목과 질서의 기저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가 깔려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캄삐코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 처음에는 남자들만 회원이었는데 나중에 여자들이 들어오고 간부(officer)를 맡아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 남자들이 반대했다. [……]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끼리 있던 캄삐코에 여자가 들어서 간부를 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 (필리핀) 남자들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필리핀 여자들을 싫어한다. 내가 보면 모두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다 잘 지내지만, 문제가 많이 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한국 사람한테 욕 먹고 혼나니까 한국 사람을 싫어한다. 페드로도 내 남편 만나면 항상 이렇게 한다(마리아는 이때 눈을 흘겨보며 찡그리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 마리아

마리아의 얘기를 분석해보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의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대리 투영시킨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메이 역시 마리아와 유사하게 캄삐코 해체 배경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에 따르면 캄삐코의 해체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차적인 원인이었고 캄삐코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회장 페드로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해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페드로는 결성을 주도하고 회장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힘들어했고,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카라메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캄삐코를 해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캄삐코의 회장직을 맡아 이끌

어갈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페드로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회장인 페드로가 일방적인 해체 통보가 구성원에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신용결사체로서의 기능은 껌뻬코가 가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Kurtz, 1973; Wu, 1974에서 재인용)으로서 결성되어 운영됐던 것임을 의미한다. 윤번식 저축 방식은 아니지만 껌뻬코는 대출과 누적 회비의 일괄 지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주자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신용결사체는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성원 간의 단체 여가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민족적 연망을 강화해 나가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주자 커뮤니티 안에는 ‘연대와 아노미’의 상반된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민족 연망과 유대에 기초하여 결성된 껌뻬코 역시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해체되는 역설적인 과정을 겪게 되었다.

껌뻬코와 같은 조직의 결성이 필리핀 스토어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마리아의 스토어가 생기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망이 이전보다 더욱 일상적인 것이 됨으로써 민족 집단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이것이 껌뻬코 결성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었다는 점은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다. 달리 말하면 필리핀 이주자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연망이 사회적 응집력의 토대로 작용함으로써 유대관계의 형성과 상호부조를 가능하게 했다.

IV. 민족적 경계의 구성

필리핀 이주자는 스토어에 들러 구매행위는 물론, 정보의 공유와 순환, 간단한 오락과 파티를 통한 유희(entertainment), 결사체(association) 모임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장소로써 스토어를 활용한다. 스토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과 맥락을 통해 이들은 민족성을 경험하게 되고 스토어 안에 문화적 영토성을 구축한다. 스토어는 물리적으로 건물 내에 한정된 공간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이주자들의 경험과 행위, 실천을 통해서 이주자의 민족성 경험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전화(轉化)되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한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고향을 떠나온 존재로서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문화적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주자가 말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에는 가족과 친

구에 대한 정서적 애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고향이 그리다”라는 말 속에는 언어와 음식, 대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구성원 사이에서 수용되는 사회적 규범 등 이전의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대한 애착까지 내포되어 있다. 즉, 이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배제는 그들에게 사회문화적 욕구와 경험을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를 만들어 냈고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환기하도록 한다.

이주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적 가치와 경험을 단순히 향수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지 않고 개별적·집합적 실천을 통해서 환기한다. 이주자가 이주 후 정착지 사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실천은 탈영토화의 시대에서 지역성(locality)의 개념을 재고하도록 만들기도 한다.³⁴⁾ 이주라는 초국가적인 실천과 경험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 합목적성을 지닌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물이든, 이주자는 새로이 이주해 간 사회에서 모국의 익숙한 문화를 이식(移植)하고, 이주사회의 맥락에 기초하여 민족성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필리핀 스토어가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필리피노는 스토어 안에서 모국의 언어³⁵⁾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파티를 즐기며 모국의 맥주와 음식을 즐기고 문화적 향수를 소비한다. 스토어에서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허용되며, 전통적 가치가 파티와 같은 일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스토어라는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재현된다. 여기에서 맥주, 음식, 파티 등 물질적인 항목과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의 배열’(Low, 1996)로 조직되고, 참석자는 스스로에게 익숙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 *ibid*)을 통해 환기시킨다. 요컨대 필리피노의 공간적 경험과 실천은 상업적 공간으로서의 필리핀 스토어에 민족성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리핀 이주자의 실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주 사회의 맥락에서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공간적 실천과 경험을 통해 실현(realization)시킴으로써 민족성을 경험한다.

34) 탈영토화된 지구화시대의 지역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에 대한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의 일련의 논의들이 유익하다. 아파두라이에 따르면 지역성의 생산과 재생산은 더 이상 영토적 경계를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일련의 초국가적 이동들은 집단적 정체성의 사회적·영토적·문화적 재생산 과정에 변화를 가한다(Appadurai, 1996; 권중화, 2004에서 재인용).

35) 필리핀의 국어는 타갈로그어지만 모국어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172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다음 백과, <http://enc.daum.net/dic100>). 공용어로는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쓰이는데 필리피노들 사이에서는 영어보다는 타갈로그어가 주로 쓰인다.

1. 민족성의 경험과 문화적 영토성의 구축

1) 두 가지의 풍경: 텔레비전 시청과 생일파티

풍경 “1”

화요일이어서 한산하다. 마리아는 학원 일(초등학교 영어강사)을 마치고 조금 전에 왔다. 마리아가 없는 동안은 리사가 스토어를 지켰다. 스토어에는 마리아와 리사 말고도 국제결혼이주여성 세 명이 더 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스토어에 와있다. 마리아의 아들은 과자봉지를 손에 들고 다니며 컴퓨터 게임을 하는 누나에게 놀아달라며 채근하고 있다.

사회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쇼를 진행한다. 무대 세트와 장식들을 보니 크리스마스에 즈음해서 기획된 TV 특별쇼쯤이나 되는 듯하다. 쇼가 진행되는 동안 신나는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참가자와 방청객들은 중간중간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쟁에서 탈락한 참가자가 있는 경우, 사회자는 탈락한 참가자를 밀쳐내며 자리로 돌려보낸다. 밀쳐내는 태도가 과장되어 보일 정도로 격하다. 마리아에게 사회자가 유명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필리핀 사람은 누구나 아는 배우이며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마리아와 동료들은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들끼리 뭐라고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필리핀 생선요리 냄새, 필리핀 쇼프로그램, 그리고 필리핀아들. — 마리아 스토어 / 2009. 12. 22(화)

마리아 스토어에서는 유료 글로벌 채널을 통해 필리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녹화된 프로그램들인데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은 주로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이다. 녹화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필리피노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모두 재미있게 보는 것 같다.

조아: (웃음) 그렇다.

연구자: 고향 생각도 많이 하겠다.

조아: 당연한 거 아닌가. 필리핀에서 텔레비전 보면 항상 친구들과 봤다. 한국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지만 우리는 일찍 끝난다. 친구들과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았다.

연구자: 텔레비전이 많지 않다고 하던데?

조이: 우리 집은 마닐라다. 시골이 텔레비전이 많이 없다. 마닐라에는 많다. —
조이(29세 / 장수겨주)

조이는 한국으로 오기 전 동네 친구들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깔깔대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주 전 모국에서의 경험과 스토어 안에서의 경험의 구분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스토어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친숙하고 편안하다. 쇼프로그램 외에도 가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며 필리핀의 전통적인 가치를 환기하고, 세계적인 권투선수라며 뿌듯해 마지않는 필리피노의 영웅 빠꾸아오(Manny Pacquiao)의 권투시합을 시청하면서 열광하기도 한다. “빠꾸아오는 최고 중의 최고다(top of the top). 우리의 보물(diamond)이다.” 그 유명하다는 권투선수를 모른다고 하자 태인면에서 일하는 메이는 의아한 듯 응시하다가 이내 주먹을 쥐며 세계 최고임을 강조한다. 빠꾸아오의 권투시합을 볼 때 10명가량의 필리피노가 있었는데, 두 선수가 별다른 공방을 펼치지 않을 때는 “좀 때려라”라는 주문을 하는 듯했고 골격이 좋은 상대방 혹은 선수를 시원하게 가격할 때는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외국에 가본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외국에 가보았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나는 항상 웃는다.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웃는다. 하지만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다. 힘들어도 웃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물론 페드로는 웃음이 없지만 (웃음). [……] 생각해봐라. 일하고 또 일하는데(work work work) 얼마나 힘들겠나?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가 모두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이유도 힘들기 때문이다. 빠꾸아오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cheer). 당신은 빠꾸아오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기는 복서이다. 최고 중의 최고다. 우리의 보물(diamond)이다. 당신이 이런 기분을 알지 모르겠나? — 메이 / 39세 / 이주노동자 / 태인 거주

편치 한 방과 스텝 하나하나에 빠져들던 풍경도 고향에서의 경험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떠 나온 고향, 그러나 그들은 필리핀 스토어라는 지하 공간에서 고향의 경험을 떠올리고, 스포츠 영웅의 시원한 편치에 만족하며 여전히 필리핀의 국민임을 확인하게 된다. 정치적 도구인 스포츠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확산(김선경, 2008)이 이주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풍경 “2”

생선요리와 기름으로 볶은 요리들 냄새가 스토어 안에 가득하고 20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인 탓에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란스럽다. 모인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가벼운 포옹과 키스와 함께 마리아에게 건넨다. 페드로는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나르랴, 마이크 작동상태를 점검하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라, 이래저래 바쁘다. 신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노는 아이들도 예닐곱 있다. 실내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지만, 전혀 신경 쓰는 법 없이 없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삼촌들(필리핀 이주노동자) 옆에서 해맑게 웃기도 한다. 아이들은 모두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다. 가끔 엄마가 따끔하게 주의를 시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어느새 스토어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족히 오륙십 명은 되어 보인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중 딱히 어느 쪽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크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노랫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노래 선곡은 주로 팝송과 필리핀 음악 위주. 가끔 한국 가요도 들린다. 각자 즐기기에 바빠서 봐주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개의치 않고 노래를 부른다. 노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레드호스(Red Horse)와 산미구엘(San Miguel)을³⁶⁾ 마신다.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보인다. 노래 부르며 마시기도 하고 무리 지어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임실) 강진의 교각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어떤 남자도 영문 사이트를 서핑하며 맥주를 훌쩍거린다. 취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간마다 경품 추첨이 이루어진다.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던 페드로가 마이크를 집어 들고 안내 방송을 하면 대화 소리와 노랫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던 스토어가 조용해진다. 맥주 5병과 무료 식사권부터 벽걸이형 LCD 텔레비전까지 경품도 다양하다. 이주여성들은 특히 벽걸이형 텔레비전이 당첨되기를 몇 달 동안 기다려왔다. — 마리아 생일파티 / 마리아 스토어 / 2009. 11. 1(일) 저녁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신나게 놀고 보는 것이 그 사람들(필리피노)이다. 주말에는 밤새워 파티하고 일요일엔 패밀리데이(Family Day)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또 신나게 논다. 패밀리데이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에 팔촌까지 다 와서 논다. 친척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넓다). 개념들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

36) 산미구엘과 레드호스는 모두 필리핀 맥주 브랜드명이다. 산미구엘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지만 일반 서민들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레드호스를 마신다고 한다.

결혼 전 한 달 간 필리핀에 머물며 결혼준비를 했다는 한국인 남편의 말이다. 위의 묘사와 관련하여 한국인 남편의 말에서 주목할 점은 파티 참석자로서 인정하고 동참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다. 패밀리데이 즉, 가족의 날에 파티하면서 가족 구성원은 물론 주변의 친척과 이웃, 친구를 구분하지 않고 동참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인 남편의 말에서도 시사되고 있듯이 가족의 범주가 매우 포괄적임을 시사한다.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에 현지조사자로서 연구자가 주목한 것도 참가한 사람의 규모와 그들의 관계였다. 연구자에게는 일개 생일파티에 오륙십 명에 가까운 동료, 그것도 가까이는 봉동에서부터 멀리는 정읍과 임실, 장수 등 타 시군에서 모여든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생일파티의 거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대단한 즐길 거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여느 때보다 더 흥미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친분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그중에는 서로 일면식 정도만 있는 사이도 있으며 스토어 방문빈도가 비교적 낮은 참석자도 있었다. 생일파티를 통해 영업수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시판에 마리아의 생일파티를 게시해 놓고 사람한테 알리면 자연스럽게 소식이 퍼진다”라는 페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각지로부터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영업주의 열성적인 홍보 때문이었던 것 같지도 않다.

이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마리아³⁷⁾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고 말하면서, 마리아(그리고 페드로)가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영업주가 생일파티를 통해 돈을 번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고 자신들은 축하해주고 즐기기 위해서 왔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필리핀의 전통적 가치인 가족주의(박희, 2002)와 친족적인 전통³⁸⁾이 결부되어 포괄적인 가족의 범주를 만들어 내고, 여기에서 비롯된 유대감이 파티 참석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리아의 생일파티라는 사건(event) 속에는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로서의 전통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파티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할 겸 모인 자리에서 오락과 유흥을 즐기는 자

37) 대부분의 필리핀노는 두 명이 동업해서 마리아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예 동업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38)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통치를 경험하면서 서구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깊숙이 침윤되어 문화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Hannerz, 2000: 임승연, 2010에서 재인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문화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방적인 문화적 변동에 함몰되지 않고 가족적 유대와 친족적 전통, 종교성과 연장자에 대한 존중심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생생하게 남아있기도 하다(박희, 2002).

리였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마리아의 생일파티는 한국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포옹과 키스가 맘껏 허용되며, 모국의 음식과 술, 노래가 ‘그들만의 공간’에서 소비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애착과 유대를 강화하는 시공간이었다. 요컨대 마리아의 생일파티는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서, 그리고 고향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관습을 환기하며 민족성을 경험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해될 수 있다.

2) ‘미완성의 한국인’에서 ‘완전한 필리피노’로

이주자는 제한된 자원과 낮은 환경에 직면할 때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Graves and Graves, 1974), 다양한 차원의 ‘배제’(exclusion)³⁹⁾와 문화적 이질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주연구에서도 이주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배경과 요소를 미시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한건수, 2006). 이주 사회에서의 정착 기간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언어와 가치, 규범, 일상의 문화적 관습을 지닌 이주 사회의 구성원 속에서 이주자는 이방인의 지위를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구조적인 배제의 산물임과 동시에 ‘타자 만들기’(한건수, 2003)의 소산이라고 하는 점은 보편적으로 합의되는 점이다. 그런데 시각을 이주자 개개인의 현실로 돌려보면 타자의 지위는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이나 이주자를 타자로 재현하는 맥락과 별도로 이주자 스스로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경험일 수도 있다. 예컨대 근무 장소에서의 차별이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또는 차단)은 타자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미숙이나 이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부족 등 사회적 배제와 결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경하고 낮은 정서적/심리적 경험은 이주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제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⁴⁰⁾ 이주자를 주류사회의 성원으로 이해하면서 배제와 차별보다는 포옹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설령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사이에 낀(in-between)’ 존재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다름(otherness)’과 차이를

39) 배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또는 문화적 체계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한 개인이 폐쇄(shut out)당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Walker and Walker, 1997; 이태정, 2004에서 재인용).

40) 물론 이주 사회가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그러한 경험들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다. 한국말을 못 해서 이마트도 가지 않았다. 아줌마(lady, 출납원)는 웃는데 말을 못 하니까 겁이 났다. 한국어교실에서 배우고 난 뒤에는 비록 잘 하진 못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 한국말은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 여기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든지 우리 말(까달로그어)로 할 수 있다. — 랜시 / 25세 / 삼례 거주

랜시는 삼례에서 거주하는 한국생활 3년차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다. 연구자(researcher)라고 밝히고 나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인터뷰를 요청하자, “왜? 남자친구 소개해 주려고?”(Why? You give me a boy friend?)라며 거침없이 농담⁴¹⁾을 건넌 정도로 쾌활한 면을 보여줬다. 본인 자신도 적극적이고 웃음이 많다고 하지만 한국말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랜시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쇼핑할 때는 물론 일상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수시로 감수해야만 했다고 한다. 한국어교실에 다니면서 말을 익히려 노력해봤지만, 강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했고, 결국은 처음 수강을 할 때부터 같이 시작했던 친구와 동시에 수강을 그만두었다.

언어 장벽에 가로막힌 이주자의 일상은 비단 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어가 비교적 능숙한 편인 마리아 역시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 마리아는 결혼을 결정했을 당시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한국 사람이야.”(OK, now I am a Korean)라며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한다. 남편과 이혼을 앞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상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그렇게 다짐을 했다. 마리아는 언어 문제로 고생할 일을 익히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까지 단단히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어 사용 환경에 수시로 노출이 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누적되자 한국 사람이 ‘되기’로 한 과거의 다짐이 가능성이 없는(impossible)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가정에서 다름과 차이를 경험하는 맥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텔레비전도 계속 보면 재미있다. 대신 (손을 귀에 대고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봐야 한다.”는 레나의 말처럼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해도 완벽한 이해가

41) 이 말은 물론 농담이었다. 랜시는 연구자가 당황한 듯 보이자 바로 농담(kidding)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불가능한 이상 한국의 텔레비전 시청은 재미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야만 하는 한국어 학습 시간이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은 스스로가 한국어라는 정착지에서 손님이나 타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남편과 아이들을 비롯한 식구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자신에게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남편,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 사이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연구자: 이곳에 자주 오는가?

로라: 아니다. 그리고 싶지만, 남편하고 애들 때문에 많이 못 온다. 밥 해줘야지…….

연구자: 여기에 오면 뭐가 좋은가?

로라: 재미있지 않나.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 말할 사람도 없다. 연구자: 한국에 온지는 얼마나 됐나?

로라: ……10년.

연구자: 그러면 한국 친구들도 많이 있겠다?

로라: 아니다. 딱 한 사람 있다. 동네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 한국어교실 다닐 때 선생님이다. 그래서 자주 못 만난다.

연구자: 그래도 한국에 살 건데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좋지 않나?

로라: 말을 못 하니까.

연구자: 한국말 잘하는데??

로라: (웃으면서) 에이……난 ‘스타킹’도 모른다

연구자: 스타킹? 발에 신는?

로라: (웃음) 그게 아니고 강호동 나오는 거, 텔레비전에서.

연구자: 스타킹을 보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가?

로라: 그렇다. 남편하고 애들은 웃는데 나만 (눈을 크게 뜨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말처럼 어려운 말도 없다. 한국에 온 지도 오래됐는데…… (한국말을 못 한다) — 로라 / 30대 중반 / 전주 거주

프로그램을 보고 웃지 못했던 이유가 로라의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쇼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단순히 언어로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몸짓이나 표현이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라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멍한 표정을 지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출산의 경험을 통해 완성된 줄 알았던 가족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미완성의 상태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현지조사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가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사람들이 여기 왜 오나?” “여기에 오면 뭘 하는가?”였다. 만나본 사람의 답변이 모두 같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심심하니까 온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려고”였다. 대체로 공통적인 이런 답변의 이면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한국인’으로서의 처지를 체험하면서 스스로가 이주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각하게 되는 경험이 존재한다.

언어 장벽은 정착지가 모국의 언어와 같거나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주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과 정도를 분석한 연구(김수재, 2008; 김영란, 2008; 설동훈·윤홍식, 2008; 이태정, 2004)도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갈등의 요소 중의 하나로 언어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스토어 안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위축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다. 어눌한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괘시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필리피노가 스토어를 관성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미완성의 한국인’에서 ‘완전한 필리피노’로 지위를 역전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강조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한국 사람은 크리스천이어도 가난하면 웃지도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 알란

완주군 3공단에서 근무하는 알란은 필리피노 중에서도 유달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경우 주말 추가근무 수당의 단맛 때문에 주말 근무를 자원해서 하는 대신 미사 참석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란의 경우는 수당의 단맛을 놓치더라도 일요일 미사에 빠지는 법이 없다고 한다. 특히나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주말을 제외한 근무일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를 마다한 채 종교적 실천을 한다는 것은 깊은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일이 밀려서 회사 지시를 받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자원할 때는 절대 손을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알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의 한국인 동료들은 알란을 “일하기 싫어서 땡 치는” 게으른 이주노동자로 내몬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다른 필리핀 동료들도 같은 필리핀 출신의 천주교 신자인데 “왜 너만 그러냐”는 것이다. 알란은 그런 ‘억울한’ 핀잔을 듣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에도 크리스천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해해주기는커녕 손가락질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란은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의 차이, 한국인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앙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한국인 동료 중에도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역시 자신을 ‘땡 치는’ 이주노동자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다른 민족과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Rummens, 1993; 임승연, 2010에서 재인용). 특히 차별적인 지위, 소수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이주자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알란의 경우에도 한국인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심의 차이, 노동 관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를 한국과 필리핀 사람의 일반적인 차이로 확대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알란만큼 신앙심이 깊지 않은 페드로 역시 같은 말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해야 한다는 얘기만 한다. 사장님도 일 안 하면 죽는다(No work, you will die)고 말한다. 사장님은 나를 좋아한다. 왜 그런 이야기하느냐고?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난해도 파티를 즐긴다. 작은 파티? 아니다. 언제나 큰 파티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한다. 그것이 하느님(God)의 뜻이다. — 페드로

페드로는 성당에 잘 나가지 않는다. 시간이 있으면 대부분 스토어에 있거나 임실, 장수 등에 가서 보따리 장사를 한다. 잔업이 있으면 언제나 자원해서 하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본인 자신도 말했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일과 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만 아는 한국 사람과 가난해도 삶을 즐기는 필리핀 사람의 태도를 대조시켜 말한다. 페드로는 말을 하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 한심해 보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페드로 역시 스스로 비난하는 한국 사람만큼 ‘과도할 정도로’ 성실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정작 자신과 다를 것 없는 한국 사람의 성실함을 필리피노의 민족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⁴²⁾ 이렇듯 소위 ‘도덕적 우월성’(함한희, 1997)을 내세우며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를 동원하는 것은, 한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체감하는 열등한 지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필리핀 스토어가 한국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담론 생산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은 스토어에 모여 각자 자기들이 경험하는 한국을 모국의 경험과 견주면서 정체성의 담론을 확산시킨다. 한국인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린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집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남편이) 성격도 좋다. 잘생겼고. [……] 여기에 모든 사람이 오지 않는다. 남편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다.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다. [……] 특히 남편이 때린 이야기. 대부분 힘든 이야기들이다. 나는 행운아다(fortunate). 남편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거나 돈 안 벌고 술만 먹는 사람들. 생각해보라. 얼마나 힘들겠는가. 지옥일 것이다. 나는 행운아다.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여자를 산다. 그게 결혼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결혼은 정말 소중하다. 그거 아는가? 돈이 없는데 속이는 예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여자가 나가면 도망갔다고 한다. ‘우리’만 비난한다. 친구 중 한 명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주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남자는 매춘(prostitution)도 좋아하지 않나? 그러나 필리핀에는 매춘이 없다.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비밀스럽게 한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필리핀에서는 이것(청소년 유해환경 문제) 때문에 거리(street)의 매춘은 없다. — 제시카 / 20대 중반 / 전주 거주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시카의 친구가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그녀도 똑같이 한국 사람은 매춘도 좋아하고 매춘을 허용하는 “웃기는(funny)” 사람이라며 힐난했다. 이어서 낙태문제를 거론하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돈을 주고 없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크리스천인 필리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공통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한국 사람과 돈이 없어도 도덕적이면서 신앙에 충실한 자신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42) 알란은 경찰로부터 일종의 퇴폐 영업 의혹을 받으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V. 동화와 이화의 경계를 넘어

필리핀 이주자는 필리핀 스토어에 모여 자신에게 익숙한 모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관성을 유지해 나간다. 필리핀 스토어는 그들이 정착지에 구축해 놓은 ‘작은 마닐라’(Little Manila)이며, 스토어를 향해 발길을 옮김으로써 불완전한 한국인의 지위를 벗어던진다. 그 속에서 그들은 더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곧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며 한국인과는 다른 존재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다. 민족적 정체성의 경험은 바로 민족 집단 외부와의 다름 혹은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며, 차이를 전제로 정체성은 주어진다.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민족적 폐쇄성은 민족적 경계를 구성시킴으로써 “주류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체득하고자 하는 지향(assimilation-oriented)”(Fong, 1965: 265)을 차단한다. 그렇다면 결국 민족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스토어는 이화를 촉진하는 공간적 기반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 이주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주자는 자신의 민족성에 대한 애착을 희석하거나 버리지 않고도 “주류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절충시키는 적응 양상(adhesive adaptation)”(Hurh and Kim, 1984)을 보인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민족 정체성의 희석이나 폐기가 주류사회에의 적응이나 동화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리핀 이주자들 역시 주류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선별적인 적응 전략을 실천한다.

이 장에서는 주류사회와 독립되어 활동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주류사회의 규범을 수용하기도 하는 모순된 측면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 의도하는 바는 필리핀 스토어가 필리피노의 민족성 경험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폐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되, 단순히 동화/이화의 이분법적 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1. ‘한국인 되기’의 담론과 동화지향의 확산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다. 남편이나 시부모의 배려 부족이나 가난, 농사일 등 제한된 여건 때문에 스토어 이용이 여의치 않은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스토어를 이용한다. 스토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 수준의 실천이

지만 스토어 이용이 일상성을 띠면서 이용자들의 관계를 집합적으로 형성시킨다. 집합적 관계의 형성은 필리피노의 민족적 연망 형성으로 이어져 민족적 경계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폐쇄성을 내포하면서 주류사회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즉, 이화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동화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담론화함으로써 민족적 경계의 폐쇄성을 희석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필리피나들은 일상적으로 스토어를 출입하면서 정보의 공유는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 경험담을 주고받는다.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국이라는 주류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필리핀 사람이라는 존재(being)에서 한국인이 되어가는(becoming) 지향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에 배태되어 있다.

여기(카라메 스토어)에 오면 결국 자기들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기네 나라말로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맨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런 논리인 거다. 근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면 여자들한테 좋은 점들이 많다. 여러 얘기도 듣고, 편하게 설 수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 아내한테 “오늘은 무슨 얘기했어?”라고 물어보면 누구 뒷담화 까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점잖아서 뽀뽀도 남 앞에서 안 하고 포옹도 안 하고 하나까 자기들이 그러면 오해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는 여자들은 다 똑같으니까 모여서 실없는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 것(문화적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애먹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주는 거 아닌가. — 한국인 남편 L

연구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필리핀 스토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체득해야 할 다양한 규범과 가치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스토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부모를 대하는 방법, 청소하더라도 “빠릿빠릿하게” 해야 한다는 점, 손을 사용해서 식사하면 더럽게 생각한다는 점 등을 서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모여서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한 규범과 문화적인 태도를 내재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동화를 위한 의지와 지향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필리핀 이주자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일삼는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도 한다. 한국적인 것의 배척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적 동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척도이다.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의사소통의 장벽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한국인 되기’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필리피나는 스토어에서 모국어로 소통하기를 즐기지만, 역으로 스토어에 모이는 동료와의 대화를 통하여 한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스토어는 필리피나가 민족적 연망을 형성하고 민족적 경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적응과 생존을 위하여 한국어 습득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자들(이주노동자)은 (필리피나들이) 한국말 하는 걸 싫어한다. [……] 영어도 원래는 필리핀 말이 아니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자기들은 조금 있다가 필리핀으로 가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 나도 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려워서 (한국어교실에) 잘 안 나갔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말) 잘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조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한국말을 빨리 배우긴 하지만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우리 집사람도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인데 한국말을 배우다가 때려치우더라. 그래도 한국말을 알아야 사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 집에 있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이 여기(스토어) 와서 있으니까 별로 불편함도 못 느끼는 거다. [……]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다시 한국어교실에 등록하겠다고 하더라. 웬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언니들이 젊었을 때 빨리 배워둬야 나중에 편하다고 했다더라. — 한국인 남편 H

가정 내에서조차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처지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막힘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상대가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위안이 된다. 그런데 “까달로그어로 실컷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서 찾아가는 스토어에서 동료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언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동료와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게 된다.

한국말을 하는 자녀와 제한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 커다란 낙담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다그

치는 소리만 할 줄 아는 모습은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엄마는 ‘조용히 해’, ‘이리 와’, ‘너 혼나’라는 말은 참 잘 한다”는 아들의 볼멘소리, “엄마는 왜 손으로 밥을 먹어?”하고 물으며 의아해하는 태도를 접하고 나서 부모·자식 간에 큰 틈새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틈새를 좁히는데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태도를 수용함으로써 자녀와의 틈새를 좁혀야 하는 것은 필리핀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몫으로 남는다.

필리핀 스토어는 이러한 개별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담론화하고, 규범화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필리핀 스토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자신도 동료가 경험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상대방의 경험담이 자신의 잠재적인 혹은 실제적인 경험으로 투영되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언어 습득이나 문화적 규범의 수용과 같은 동화에 대한 지향과 의지가 생산되고 퍼진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민족성을 집단으로 표출하는 필리핀 스토어에서 형성된 폐쇄적 연망을 매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2. ‘아띠’와 동화지향의 확산

스토어를 찾아오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동화적 지향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카라메이다. 카라메는 스토어의 영업주이고, 국제결혼이주여성 사이에서 가장 고령자이고, 한국생활의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이다. 카라메는 이러한 위치를 활용하여 스토어에 모이는 필리피나를 대상으로 지도자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저기 저 나이 많은 여자(카라메)는 음…… ‘아띠’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그냥 나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 아띠에게 나의 고민을 얘기하면 들어준다. 나보다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으므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야 살 수 있다. — 레오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카라메에게는 상징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국 생활의 외로움, 가정생활의 불화, 여타의 문화적 갈

등과 소외로 인한 문제에 대해 카라메만큼 직·간접적인 경험을 지닌 사람은 없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카라메를 ‘아띠’ 혹은 맏언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의지한다.

이 사람들(국제결혼이주여성)은 가게 주인을 맏언니로 생각한다. 거의 어머니나 다름없다. 우리 아내도 맨날 여기 오면 카라메한테 어찌고저찌고 늘어놓는 거다.
— 한국인 남편 M

카라메가 많이 알려준다. 나이가 많고 한국생활 경험도 많다. 그녀는 항상 “한국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한국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고 한다. — 랜시

카라 메는 자신의 스토어에 찾아와서 모이는 필리피나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뉴커머에게 그들의 결혼은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주시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은 카라메의 태도는 필리핀 스토어를 찾아오는 동료들을 “딸이나 동생 같은 사람들”로 여기면서 자신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스토어 내에서 그녀의 행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녀의 조언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동화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높이기도 한다.

카라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카라메는 한국인 남편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동료들이 주류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넓히도록 돕는다. 전술한 대로 카라메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보다는 한국인 남편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이용한다. 카라메 스토어는 민족성을 집단으로 드러내는 공간일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들과 교류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들도 카라메 스토어를 찾으면서 이주자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데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모임을 운영하고 있다.⁴³⁾ 이 모임의 결성과 운영에는 한국인 남편 P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회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참석률도 높다. 카라메의 독려와 남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도 이 모임에서 “스

43)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들의 다문화가정모임뿐만 아니라 성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 선녀머복지관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토어 밖의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

아내가 중앙성당 내에서 결성된 필리핀 사람들의 종교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행사 홍보를 하며 동참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쪽 모임은 약간 흐지부지하다고는 하는데 우리 마누라 약밥이 안 먹히는 것일 수도 있다. 카라메 보라. 카라메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짹짹 민다. 남편들이 가자고 하면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건 반강제일 수도 있고……. 근데 카라메는 영향력이 있어서 여자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 한국인 남편 K

스토어를 이용하는 필리피나가 자조 모임이나 여타의 형태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활동하거나 공식적/비공식적인 공동체 모임을 결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필리핀 스토어의 집단적인 이용은 필리피나의 사회적 연망을 강화하고 민족적 유대에 기초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카라메는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권위를 지닌 리더의 역할을 한다. 카라메의 역할은 그녀가 한국인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주 사회에서 이주자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노력과 정향은 구성원의 동화지향 확산에 이바지하기도 하고(Gans, 1997)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동체가 주류사회에 동화되고 이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카라메는 자칫 이화의 매개체 기능만을 할 수 있는 필리핀 스토어에서 동화의 확산을 이끄는 ‘아띠’이다.

VI. 결론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는 기존의 익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차례로 개점하였다. 전주 필리핀 스토어의 최초의 사례인 카라메 스토어는 카라메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도움을 얻어 개점한 경우이고, 이어서 등장한 마리아의 스토어는 이주노동자 페드로의 권유와 조언에 힘입어 개점한 사례이다. 마리아 스토어의 운영이 카라메 스토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동업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카라메와 마리아의 스토어는 도심의 외곽에서 최초 개점한 이후 지리적 이점과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도심으로 이전했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구도심은 도심팽창 현상으로 공동화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지가도 하락하면서 원주민들의 선택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곳이다. 두 곳의 필리핀 스토어는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이 마땅히 선호하지 않는 구도심 공간에 들어선 ‘이방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 스토어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이용자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민족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필리피노는 이 공간에서 ‘뿌리가 뽑힌 존재(the uprooted)’로서 모국의 문화적 향수를 소비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상업공간인 스토어는 민족성을 띠게 된다. 노동과 결혼의 형태로 들어와 한국사회에 사는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필리핀 스토어가 지니는 의미는 단순한 상업이나 여가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필리핀 스토어는 이주자 집단으로서 필리피노가 집단적 행위를 민족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일종의 ‘작은 마닐라’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피노가 스토어로 들어간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한국인’에서 ‘완전한 필리피노’로 거듭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필리핀 스토어는 필리핀 이주자가 모국의 문화적 향수를 소비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연망의 형성과 지속을 매개하는 공간이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필리피노가 이주 사회에서 민족 연망을 형성하고 집단적 유대를 확인하는 일차적인 공간은 성당이다(권중화, 2004; 변현진, 2004). 하지만 필리핀 스토어가 활성화되면서 성당의 사회적 역할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 성당은 이주자를 처음 받아들이는 리셉션 센터로서 기능이 제한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당과 비교할 때 스토어가 필리피노의 사회적 관계를 일상 속에서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내고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필리핀 스토어는 일상 활동을 매개로 구성원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문화적 향수를 소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적 경계를 구성하는 공간이 된다. 민족성을 집단으로 표출하는 필리핀 스토어는 그 안에서의 다양한 실천과 행위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민족성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성의 경험을 통하여 필리피노는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주 사회 내에서 자신의 다름과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나 폐쇄성을 내포한 민족 연망의 형성이나 민족성의 경험을 통한 민족적 경계의 구성이 반드시 주류사회로의 동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민족지적 사례는 민족 연망의 형성이 동화의 과정을 지연시키고 이화의 과정을 촉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리피노가 스토어에서 민족성을 경험함으로써 민족적 경계가 구성되지만 동시에 동화의 지향과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본 논문이 동화와 이화의 이분법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고자 했을 뿐,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화와 이화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리핀 이주자의 삶에는 동화와 이화의 개념으로 각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화와 이화의 과정이 서로 분리되고 상충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화의 과정이 때론 역설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필리핀 스토어가 필리피노 엔클레이브의 맹아적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주의 초기 단계에서 이주자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원의 결여를 동족 간의 폐쇄적인 연망을 구축함으로써 극복해 나간다. 이주자가 집중적으로 정착 및 거주하는 지역이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고 유지되는 것도 그것이 새로이 유입되는 이민자들(newcomers)의 거주와 익숙한 문화, 구직 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Logan *et al.*, 2002).

물론 필리핀 스토어가 서구사회의 엔클레이브만큼 이주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필리핀 스토어가 익숙한 모국의 문화를 이주 사회에서 공유하면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직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직업 소개, 공식적인 공동체 조직의 결성 등 이주자의 엔클레이브가 지닌 기능과 역할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필리핀 스토어가 엔클레이브의 맹아적 단계를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참고문헌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선경. 2008. “스포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박정희 정권과 2002 월드컵을 중심으로

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재. 2008.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전략.” 목포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 201》 11(2): 103-138.
- 권중화. 2004. “한국 내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3): 819-849.
- 박희. 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123-158.
- 변현진. 2004. “외국인노동자 조직의 형성과 활동.”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송도영. 2008. “일상 공간행위와 재현을 통한 도시경관의 문화정치: 파리 20구 벨빌 지역 이주민 커뮤니티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1): 151-184.
- 양정혜. 2007. “소수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미디어 젠더&문화》 7: 47-77.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 145-181.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8(2): 189-219.
- 이창호. 2008.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와 후이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75-122.
- 이태정. 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연. 2010. “재일한인타운의 사회-공간적 재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오사카 이쿠노쿠를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안나.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쓰지모토 도시코 2006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형성을 위한 이주여성의 저항과 전략: 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157-193.
- _____.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노동문제논집》 13: 99-129.
- 채수홍. 2003.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여성주의 민족지의 젠더와 계급.” 《여성연구》 65: 1-33.
- Alba, Richard, and Victor Nee.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826-874.
- Appadurai, Arjun. 1996. “Sovereignty without Territoriality: Notes for a Postnational Geography.” *The Geography of Identity*, edited by Patrica Yaege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ankston, C. L., and Min Zhou. 2000.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Identification, and Adaptation of Vietnamese Adolescents in an Immigrant Community.” *Sociological Quarterly* 36: 523-534.
- Barker, R. 1991. *The Social Work Dictionary*, 2nd Edition. Washington, DC: NASW Press.
- Barth F.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Boston: Little, Brown.
- Boggs, Vernon, Gerald Handel, and Sylvia F. Fava (eds). 1984. *The Apple Sliced: Sociological Studies of New York*. Massachusetts: Bergin & Garvey Publishers.
- Bottomley, Gillian. 1992. *From Another Pl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nley, I. H. 1989. “Settlement Dimensions of the Vietnam-Born Population in Sydney.”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27(2): 129-154.
- Constable, Nicole. 2007. *Maid to Order in Hong Kong*.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Fong, Stanley L. M. 1965. “Assimilation of Chinese in America: Changes in Orientation and Social Perce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3): 265-273.
- Gans, Herbert J. 1997. “Toward a Reconciliation of ‘Assimilation’ and ‘Pluralism’: The Interplay of Acculturation and Ethnic Retention.” *International Migration*

- Review* 31(4): 875-892.
- Gilbertson, Greta A., and Douglas T. Gurak. 1993. "Broadening the Enclave Debate: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Dominican and Colombian Men in New York City." *Sociological Forum* 8(2): 205-220.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ves, Nancy B., and Theodore D. Graves. 1974.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 117-151.
- Grimes, Seamus. 1993. "Residential Segregation in Australian Citie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7(1): 103-120.
- Gross, Jon, and Bruce A. Lindquist.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 Structure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 317-351.
- Hagan, Jacqueline, and Helen Rose Ebaugh. 2003. "Calling Upon the Sacred: Migrants' Use of Religion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4): 1145-1162.
- Heisler, Barbara Schmitter. 1992. "The Future of Immigrant Incorporation: Which Models? Which Concep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2): 623-645.
- Hirschman, Charles. 2004.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206-1233.
- Hurh, Won Moo, and Kwang Chung Kim. 1984. "Adhesiv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n Alternative Strategy of Minority Adapt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2): 188-216.
- _____. 1990.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1): 19-34.
- Janjuha-Jivraj, Shaheena. 2003.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apital within Ethnic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7(1): 31-43.
- Kim, Myoung-Hye. 2007. "The Struggles of Women in Diaspora for Reinventing Self-Identi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5(4): 5-23.
- Kurtz, Donald V. 1973. "The Rotating Credit Association: An Adaptation to Poverty." *Human Organization* 32:49-58.
- Logan, John R., Wenquan Zhang, and Richard D. Alba.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Low, Setha M. 1996. "Spatializing Culture: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Costa Rica." *American Ethnologist* 23(4): 861-879.
- MacDonald, John S., and Leatrice D. MacDonald. 1964. "Chain Migration Ethnic Neighborhood Formation and Social Network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2(1):82-97.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in, Pyong Gap. 1992.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4): 1370-1394.
- Model, Suzanne. 1985.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Ethnic Enclave: Blacks, Italians, and Jew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1): 64-81.
- Rummens, J. 1993. "Personal Identity and Social Structure in Saint Martin: A Plural Identities Approac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York University.
- Parreñas, Rhacel Salaza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ach, C. 1975. *Urban Social Segregation*. London: Longman.
- Sanders, Jimy. 2002. "Ethnic Boundaries and Identity in Plural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327-357.
- Sanders, Jimy, Victor Nee, and Scott Sernau. 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n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81(1): 281-314.
- Schoeneberg, Ulrike. 1985. "Participation in Ethnic Associations: The Case of Immigrants in West German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3): 416-437.
- Wakler, A., and Walker, C. (eds). 1997. *Britain Divided: the Growth of Social Exclusion in the 1980s and 1990s*. London: Child Poverty Action Group.
- Wu, David Y. H. 1974. "To Kill Three Birds with One Stone: The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of the Papua New Guinea Chinese." *American Ethnologist* 1(3): 565-584.
- Yinger, John. 1987. "The Racial Dimension of Urban Housing Markets in the 1980s." *Divided Neighborhoods: Changing Patterns of Racial Segregation*, edited by G. Tobin. Newbury Park, CA: Sag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 Boundaries among Filipino Migrants

Donghwan Moon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This paper is an ethnography for which I did participant-observation in Philippine stores. It argues ethnic networks and the experience of ethnicity, which tells about social closure, cannot be fully grasped by the dichotomy of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To discuss this issue, the paper addresses the historical overview of Philippine stores first, and then analyses the processes of ethnic network formation and ethnic boundaries construction. The paper's conclusive argument is to show the processes of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are not contradictory but closely interrelated. There are two Philippine stores in Jeonju. One is called Maria Store that is owned by Filipina migrant woman, Maria, and Filipino migrant worker, Pedro. Another one is Caramé Store whose owner is Caramé. The latter was opened in 2007, which is the first example of Philippine store in Jeonju, and the former was opened in 2008. Both of them moved from suburban area to the old downtown in Jeonju in order to capitalize geographical merits. The Philippine store is basically a commercial space selling Philippine food and commodities to the Filipino. However, its sociocultural meanings and functions go beyond a commercial space. It has social functions both of making and of extending ethnic network. The Filipino is mostly catholic church-goers, which makes them build primary social network. This paper's ethnographic data, however, show that a church's social function came to be transferred to Philippine stores after the emergence of them. In addition to this social function, Philippine stores are an ethnic space in which the customers construct ethnic boundaries, as well. As a process of experiencing ethnicity, a series of cultural practices in stores can be decoded into a symbolic meaning that the customers become born-again, from 'an incomplete Korean' to 'a complete Filipino'. An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the stores and Filipino migrants' experiences or practices neither necessarily obstruct their assimilation nor prompt dissimilation processes. Ethnographic examples in this paper clearly show the closure property of ethnic network may expand assimilation-oriented attitude. It is true that one's experience of ethnicity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 boundaries have closure characteristic to some extent. However, Filipino migrants' selective attitude and practices show that migrants actively accept assimilationist attitude when it is needed.

Key words: Philippine store, Filipino, ethnic network, ethnicity, assimilationism

재중한국인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

최 석 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경제적인 기회를 목적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중국의 조선족 동포와는 다른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주와 다른 이주 모습을 보인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주는 본국에서 모든 기반을 거주국으로 옮겨서 생활하며 이주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거주국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는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는 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주의 모습을 초국적 이주라고 부른다. 이런 초국적 이주자는 한 거주국에 정착하지 않으며, 여러 거주국을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다른 이주자와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는 거주국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자영업 비율이 높으며 그들의 직업만족도는 현지사회에서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내에서의 삶과 앞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재중한국인의 올바른 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와 사회적 관계 변수가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별, 중국이해정도,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이다. 둘째, 소득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령, 성별,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해정도, 연령, 소득변동, 가족동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활동에서는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많이 있거나 재중한국인 사회 내의 사적 모임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사회자본이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초국적 이주의 특성상 장소 의존도가 낮으므로 경제적 활동에서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직업만족도에서는 오랜 기간 정착해야 형성할 수 있는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보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얻는 정서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재중한국인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는 개인적 특성 외에 친족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적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결정된다.

주제어: 자영업자, 초국적 이주자, 직업만족도, 사회자본, 구조방정식모형

* 전북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darkcian@naver.com.

I.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모든 나라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재외동포를 통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는 단순히 타국으로 이민을 한 사람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며 그런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통계를 보면 중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171개국에 살고 있으며, 1971년에 약 70만에 불과하던 재외동포가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약 682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은 약 233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미국이 약 210만 명, 일본은 약 9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한인사회와 민족문화네트워크(장윤수, 2006)나 지역별 특성(정성호, 1998), 민족 정체성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해외 한인의 자영업자에 대해 주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창업유형별 특징이나 사례, 네트워크 현황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임영언, 2007; 임영언·이석인, 2006; 배형엽, 2006). 이런 해외 한인사회는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의 한인사회는 주로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 진출한 사람들과 유학생 등이 형성한 것으로 미국의 국적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인 타운을 건설하여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국 사회 내에 포함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로 일본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강제노역, 또는 징병에 동원되거나 그 후 가족체제, 단기체제, 유학생, 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여 교포 사회를 이루고 일본 사회에 포함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현지사회에 포함되려는 노력보다는 집거구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 경제·교육·문화 활동 등을 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현지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즉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중국 현지사회는 ‘판시’ 문화로 인해 집단적 결속이 강하여 이민자에 대해 배타성을 띠므로써 재중한국인 사회는 고립되어 있다. 이처럼 유교권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의 사회에서 이민자 집단이 현지사회와 고립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한인사

회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재중 한인사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재중한국인사회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중국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한인사회이다. 즉 재중동포로서 주로 동북 3성에 있으며 중국정부에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고 모든 경제적·문화적·교육적 활동이 조선족 집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은 일제강점기 망명 이민과 수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주가 많았고 농업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다(정성호, 1998). 그 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조선족에 관한 관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그들의 특성과 삶에 관한 연구와 방문취업 재중동포의 취업과 생활세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현미, 2009; 장윤수, 2006; 김재기, 2003; 한주성, 1998; 정성호, 1998). 이와는 다르게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17년간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진출 확대에 따른 주재원과 그 가족 중심의 재중한국인과 현지 교민사회 시장을 대상으로 현지에 창업을 시도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중한국인 사회는 형성되었고 급증하고 있다. 이 재중한국인 사회는 기존의 전통적 이주와 다른 초국적 이주의 형태를 보인다. 즉 조선족 동포는 중국에 정착하여 평생을 중국 내에서 생활하고 모든 기반을 중국에 가져왔지만 초국적 이주의 경우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아직 재중한국인 사회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진척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진출하면서도 중국의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국적 이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재중한국인의 초국적 이주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로 인해 중국으로 기업과 개인이 진출하면서 재중한국인사회는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였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월 1일을 기준(표 1 참조)으로 중국 거주 한국인은 2,324,638명이다. 그 중 “중국 조선족”이 1,923,329명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교민” 즉 재외국민의 수는 401,309명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중국 정부의 통계를 통한 추정치로 실제 더 많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런 재중한국인 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수출과 수

〈표 1〉 재중 한인사회 인구, 2009년 5월 1일 기준

재외동포 (A+B)	외국국적 동포(A)	재외국민				
		소계(B)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재외국민 등록자
2,324,638	1,923,329	401,307	37	342,431	58,841	109,783

입을 통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호의적인 관계가 필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적 협력과 아시아권에서의 사회·문화적 협력을 위해서는 재중한국인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재중한국인이 중국 현지사회 적응하였는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직업만족도가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현지사회에 잘 적응해서 일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중 한국인사회를 이루고 있는 재중한국인의 직업 만족 결정요인을 통해서 중국 현지사회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 만족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중한국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진출로 인한 주재원과 유학생,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이다. 이 중 주재원과 유학생의 경우 중국 내에 거주하지만, 정착을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는 아니며 자영업자와 다르게 한국정부와 시장과의 관계가 지속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재중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 한국기업의 현지 적응 과정과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장수현, 2003), 중국진출 한국기업 주재원의 현지 문화적응 유형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안중석, 2010), 한국기업의 중국 내 경영전략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김혜진, 2006),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김윤태, 2003) 등 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회로 중국에 진출한 후 중국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상황도 아닌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정착하여 재중한국인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현지사회와의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백권호 외(2010)의 연구를 통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특징을 개인적인 부분(성별, 연령, 중국거주기간, 중국이해정도)와 경제적인 부분(소득, 한국에서의 소득과

비교, 현재 직업만족도), 사회적 관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부분을 보면 중국에 진출한 계기는 대기업 주재원 근무나 유학, 출장으로 인해 중국 상황에 대해 경험한 사람이 중국에서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오거나 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을 통해 일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해당 지역에 진출한 사람, 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다. 종합하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성별은 남자가 80.9%, 여자가 19.1%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50.2%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28.2%), 50대 이상(21.5%)의 순이었다.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9.3년으로 중국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현지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본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업종, 역사, 중국어, 경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 순이었다.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소득은 평균 25,575.5 위안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소득이 비슷하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한국과의 소득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소득이 현재 조사하는 시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가이다. 이 문제에서 중국 거주 기간은 평균 9.3년으로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가 거의 변하지 않은 만큼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부분을 보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측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 관계가 중요하게 보인다. 그리고 공적인 한인 단체보다 문화 동호회, 동창회 등 사적인 단체가 사업 네트워크 형성에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재중 교민들 간의 교류가 조선족을 포함한 현지인과의 교류보다 훨씬 더 활발하며, 조선족보다 비조선족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 호감, 친근감,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도 조선족은 순위가 가장 낮다. 또한, 중국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회에 잘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40% 수준에 육박한다. 김윤태(2003)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중국 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지정부와 현지사회와 소통을 위한 강력한 교민단체가 부재 상태이고 현지사회에 고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와 현지사회와의 관계가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된 만큼 최근 임금상승과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의 약화로 인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중한국인에 대한 경제역량과 문화 수준에 대한 현지인의 평가가 과거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되면서, 재중 한국인사회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현지사회와 단절된 삶,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소통에 필요한 강력한 교민단체 부재 등으로 인해 중국 내의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중국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인 활동과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 활동(소득, 한국과 비교했을 때의 소득 변화)과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진출과 현지 적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II. 연구목적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진 중국의 경제 상황과 혈연중심적인 연대가 강한 중국 사회에서 외국기업 및 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임금상승,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재중교민사회에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중국진출과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직업 만족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사회는 ‘관시’ 문화로 인한 강한 연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재중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현지사회에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지사회의 언어, 사회, 정치, 문화, 업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성별, 연령,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중국거주기간,

중국 이해 정도와 사회적 관계가 직업만족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성과가 직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중국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제적 성과인 소득과 소득변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소득과 소득변동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소득과 소득변동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가 중국에서의 월평균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 관계, 중국에서의 월평균 소득이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 관계가 소득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 관계, 소득변동이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1992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교민을 구분한다. 재외한인 중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은 주로 동북 3성에 집거구를 형성하였으며, 중국 사회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농업사회를 이루고 있다(정성호, 1998). 하지만 1992년의 중국진출 교민들은 대도시 주변에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였으며, 대기업 주재원이거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재중 교민의 정착과정은

국내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하여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이 현지에 정착한 경우,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졸업 후 현지에 정착한 경우, 개인적인 사업이민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백권호 외, 2010). 장운수(2006)의 연구에서는 재외 한인의 특성을 중국과 일본, 미국을 통해 보고 있다.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흔히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한인들의 집거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 또한,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 존재하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한인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광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이주하였고, 지금도 많이 이주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 획득에 있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인과의 결혼 및 귀화로 인해서 재일 한인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 동포의 경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재중한국인의 경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를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에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출하여 중국 대도시의 코리아타운에서 재중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 정의한다.

2. 직업만족도

이민자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에서 에번스(Evans, 19989)는 호주의 소수 이민자 집단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노동경험, 직업, 출생지, 업무 소유권이 이민자의 자영업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특히 큰 규모의 소수 민족집단의 경우 민족 시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민자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한다. 더불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포르테서와 저우(Portes and Zhou, 1996)의 연구에서는 이민자사회에서 성공한 자영업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사회에도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성공은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소수민족 내의 커뮤니티로 인해 이루어지고 신규 이민자의 경우 성공한 이민자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실력과 경험을 얻게 된다고 나타났다. 해머스테드(Hammarstedt, 2001)는 스웨덴의 이민자 연구를 통해 연령, 성별, 교육 및 시민 지위를 통제한 후

토착민과 다른 이민자 그룹 간의 자영업 비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 전통의 차이와 노동시장의 위치, 실질적인 형식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자영업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자영업 부문 및 고용이 이민자의 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민자의 자영업은 거주국에서 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민자 내부의 네트워크와 현지사회와의 의사소통,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의 위치 등에 의해서 자영업이 결정되며, 이런 자영업에 대한 직업 만족이 이민자사회나 현지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는 다르게 조직적인 특성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직업 만족도는 자영업자의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이런 직업만족도 혹은 직무만족도는 로크(Locke, 1976)에 따르면 “개인의 직무 혹은 직무수행의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방하남(2000)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과 그 이유를 일과 가사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개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즉 자가소유 여부, 가구소득 수준)나 개인이 직무수행결과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수준(월 임금)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냈다.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순수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대해 김우영·김응규(2001)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를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럽거나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로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일에 대해 동기가 높고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생활의 성취도 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서 외국에서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외환위기 이후 직업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에서 경기변동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근속연수나 산업 및 직종형태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증가하였다. 홍성희(2005)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근무시간, 안정성, 전망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며, 규모와 소득 등의 사업체 특성, 경기변동과 같은 환경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에 따라 자영업의 소득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자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 사업 기간, 종업원 유무, 창업자본금이었으며, 자영업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자영업 경험, 가계경제 인식, 가계경제전망, 근무시간, 소득, 세력화 즉 일에 대한 주도권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자영업의 특징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인진(2002)의 연구를 보면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의사소통과 거주국의 이민법 등으로 인해서 거주국 기업에 취업하기란 어려우므로 경제적 활동의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질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고학력, 숙련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특히 초국적 이주를 하면 거주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모국으로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주국에서 취업하기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 백권호 외(2010)의 연구에서 보면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의 직업으로 인한 소득과 한국에서의 소득과 비교를 통한 소득변동이 현재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윤태(2003)가 보여주듯이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에서는 중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현재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 있어서 직업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직무와 직무수행을 통한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 상태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적 기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성공은 소득 증가가 기본적인지만 경제적 활동에 있어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 있어서 직업만족도는 현지 적응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면서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높이려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초국적 이주

전통적인 이주와는 다른 초국적 이주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 이론은

미시적인 개별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거시 수준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파이스트(Faist, 2010b)는 거시 이론을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 또는 친족 그룹, 가정, 지역, 공식적인 단체와 우호 단체에 걸쳐진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후 이주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디아스포라와 초국적주의는 때로 유사하다고 본다. 이는 다국적 사회형성 중 하나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 분야에서 초국적 주의는 커뮤니티와 사회 공간, 경계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이민자의 초국적 활동의 출현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대한 문헌들이 존재하며 초국적 공간과, 세계 각국의 국가 및 지역에서 제도 변화의 징후를 조사해야 한다. 초국적 이주의 확산은 가족, 협회, 네트워크, 지역단체,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초국적 관계 형성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Faist, 2010c).

파이스트(Faist, 2010a)는 장소라는 사회-공간적 차원은 국제 이주자들이 특정한 결절 지들을 중심으로 이주하고 정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한다. 이런 장소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의 이주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장소 특수적인 조건들이 존재하며, 세계화와 국가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이주를 자극하고 있더라도 장소 의존성이 높은 경우 이주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본다. 반면에 사람들의 장소 의존성이 낮고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에 높은 정도로 연결되어 연쇄 이주의 가능성이 큰 장소에서는 국제적 이주 가능성이 커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이주의 경우 자신의 모든 기반을 거주국으로 옮겨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면, 초국적 이주는 거주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어느 때라도 모국에 돌아갈 수 있는 특이성을 보인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차이가 나타난다. 디아스포라와 초국적 이주의 유사점은 언젠가는 모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디아스포라의 경우 강제적인 이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주를 통해 거주국에 정착한 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국으로 귀환을 염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초국적 이주의 경우 거주국과 모국을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네트워크는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난다.

4. 사회적 자본

재중한국인의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활동과 현지의 적응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의 크기, 강도, 연결망에서의 위치,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이라는 네 가지가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Bourdieu, 1986). 연결망의 강도와 연결망에서의 위치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연결망의 강도는 친밀감의 정도를, 연결망의 위치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런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로 콜만(Coleman, 1988), 포르테스(Portes, 1998), 퍼트남(Putnam, 2000), 린(Lin, 1999; 2001) 등이 있다.

린(Lin, 2001)은 사회적 자본을 도구적, 표출적 행위로서의 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려는 개인이 사용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투자라고 정의하며, 사회구조 속에 자리 매겨져 있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구적 행위의 예로는 직업 획득,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보상이 있으며, 표출적 행위의 예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유지, 생활에 대한 만족, 긴밀한 네트워크가 유용하다. 또한, 이민자와 소수민족 기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망 및 그 연결망을 따라 흐르는 사회자본이 핵심적인 자원임을 확인하여 강한 연대의 강함의 입장과 이민자의 삶의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인다.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은 지위발생기(position generator) 측정방법을 통해 사회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성균(2006)의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경우 유교적인 문화가 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인적자본과 금융자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2차 집단의 영향보다는 1차 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중 교민사회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와 중국 내의 전통적인 혈연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현지인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혈연과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김운태, 2003). 이것은 현지사회와 거의 고립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이 그들이 속한 교민사회 내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강한 연대의 힘’(strength of strong)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약한 연대의 힘’(strength of weak tie)을 중요시하는 그라노베터

(Granovetter, 1973, 1985)는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고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관계는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으로 구분하고, 상호작용시간, 감정적 유대의 정도, 친밀도, 상호 지원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강(약)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과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약한 연결망은 강한 연결망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반복적이고 동질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는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기 때문에 강한 연결망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약한 연결망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bridging)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낳게 한다.

최영근(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했으며, 신생기업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가의 네트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백권호 외(2010)의 연구를 보면, 현지 창업 성공에 중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역량으로 파악된다.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중국 측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신뢰 관계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사업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공적 성격의 단체보다는 사적인 단체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부분에서는 재중 교민들은 대다수 중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현지인(조선족 포함)과의 교류보다 재중 교민들 간의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하다. 즉, 기업의 성과에 사회적 자본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중 교민사회에서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을 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중국 측 네트워크가 한국이나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공적인 단체 참여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자본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아는 사람들과 사회관계를 형성할수록, 연결망에 내재한 자원과 신뢰가 높아져 거래행위가 확대될 것이며, 사업체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높여서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포르테스(Portes, 1998)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회자본의 근원을 가치의 내면화, 상호성의 교환, 제한된 연대, 강제할 수 있는 신뢰로 보았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기능을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 통제의 근원으로 제한적 연대와 강제할 수 있는 신뢰로 인해 공식적이고 지나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족 지원의 근원으로 부모와 친척의 지원이 사회자본의 근원이 된다는 것으로 집단의 사회적 유대와 통제라는 사회자본의 결핍을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으로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 강한 연결망에서 더욱 약한 연결망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 외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는데, 첫째는 폐쇄적 특정 집단에서는 외부인에 대해 배타성을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결속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향 평등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포르테스와 저우(Portes and Zhou, 1996)는 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소수 이민자 집단에서 폐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이민자가 거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이민자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쇄적 연결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IV.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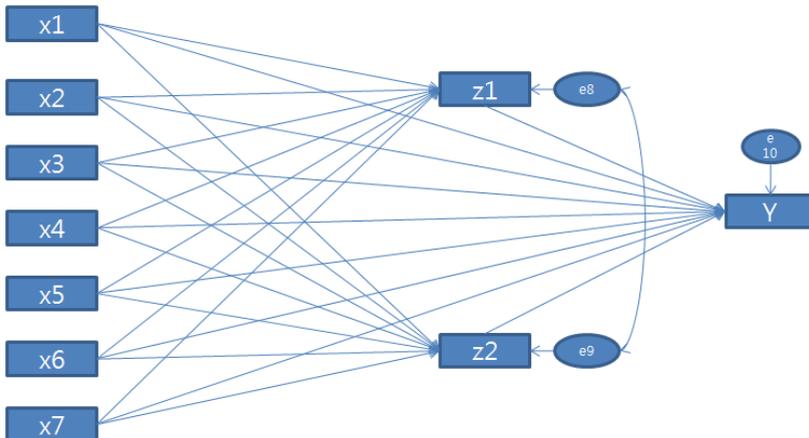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재중 한인사회 연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의 원자료이다(백권호 외, 2010). 현지 기업가 자영업자 대상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0년 7-8월이다. 전체 표본 수는 209명인데, 지역별로는 베이징 13명, 상하이 29명, 톈진 42명, 선양 21명, 칭다오 74명, 이우 3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조사한 설문지를 입력하여 231명을 전체 표본 수로 삼았고, 분석에 포함될 변수의 항목에 무응답과 이상치가 입력된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 실제로 사용된 최종 표본 수는 195명이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이용하였다. AMOS는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중 하나이며, 구조방정식 모형, 공분산분석, 인과분석 등의 자료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경로분석에 기반을 둔 선형회귀모형, 요인분석 등의 통계분석도 가능하며 전통적 통계 방법인 회귀 분석과 요인분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과적 모형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성별, 연령, 중국거주기간, 중국 이해 정도의 개인적 특성과 개방적 사회자본, 폐쇄적 사회자본, 가족 동거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월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 모형을 살펴보았다. 다만 매개변수 중 중국 내 월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의 경우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가진다. 매개변수 중 소득변동을 포함시킨 이유는 경제적 동기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한국에서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중국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중국에서의 직업에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x1 :성별, x2: 연령, x3: 중국거주기간, x4: 중국이해정도, x5: 개방적사회자본, x6: 폐쇄적사회자본, x7: 가족동거
Z1: 월평균소득, Z2: 소득변동, Y: 직업만족도

3.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최종 종속변수로 사용된 것은 직업만족도이다. 본 연구에서 직업만족도의 변수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현재 직업만족도이며 1점에서 7점으로 측정하였다.

2) 매개변수

①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변수는 중국에서의 월평균 소득으로 최소 5,000위안에서 최대 8,000만 위안으로 분포해 있으며 평균 27,275.15위안이다.

② 소득변동: 소득변동 변수는 중국의 월평균 소득과 한국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의 증감을 측정했다. 한국의 월평균 소득이 범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10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5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50,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350,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450,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550,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650,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750,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850,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950, 100만 원 이상=1050으로 재부호화(recode)한 후 외환은행의 2010년 7월 30일 기준의 환율(1위안=176.65원)로 나눈 값을 중국의 월평균 소득 - 한국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즉, 소득 변화=중국의 월평균 소득-(한국의 월평균 소득*10000/176.65)이다.

3) 독립변수

① 재중한국인 개인적 특성변수: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중국거주기간, 중국이해정도로 구성된다. 성별은 남자=1, 여자=0인 가변수로 구성된다. 연령은 22세부터 63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43.84세이다. 중국거주기간은 중국에서 거주한 총 기간으로 4개월에서 251개월(약 21년)로 분포해 있으며 평균은 107.41개월이다. 중국이해정도는 중국어 구사능력, 중국 사회·문화 이해, 중국 역사 이해, 중국정치 이해, 경제 운용 메커니즘 및 경제 동향, 업종 동향 및 업계 경쟁 메커니즘을 합한 후 평균을 낸 값이다. 중국이해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표 2〉 지위발생기 측정방법

ID	직업종류	Lin	Treiman	표준국제직업분류	값
1	변호사(판검사, 회계사, 변리사 포함)	92.3	73	121 변호사	7
2	전문 기술 엔지니어	86.9	65	0023 전기, 전자 엔지니어	7
3	경영자	75.1	65	0211 총괄관리자	7
4	기업 과장	70.6	60	02192 기업과장	6
5	자영업자	62.0	48	041 도소매 자영자	5
6	노동조합 간부	59.8	50	02196 노동조합간부	5
7	교사	44.2	61	013 교사	6
8	보험설계사	66.0	50	0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5
9	비서	61.9	53	03211 비서	5
10	판매원, 외판원	49.4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3
11	사무기계 조작원	45.0	43	03930 하급사무원	4
12	하급사무원	44.0	43	03930 하급사무원	4
13	조장, 반장	49.7	46	0700 생산감독	5
14	숙련공	44.0	46	0700 생산감독	5
15	기계정비공, 카센터수리공	27.0	43	084 기계공, 수리공	4
16	기계운전공, 기계제작공	21.0	38	072 금속가공처리공	4
17	경비원, 순찰원	18.0	25	05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사자	3
18	웨이터, 바텐더	17.0	21	0532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 종사자	2
19	수위, 짐운반원	12.7	22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 종사자	2
20	단순노무자, 건설노동자	7.9	18	0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2
21	농어민	9.0	20	0621 일반 농업노동자	2

자료: Lin and Dumin (1986: 374); Duncan (1961b: 155); Treiman (1977:235-260); 심경섭·설동훈 (2010:46).

신뢰도 분석을 해본 결과 크론바하 알파가 0.901로 높게 나타나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회적 관계 변수: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관계는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 가족동거 변수로 구성된다. 먼저, 개방적 사회자본은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의 지위발생기(position generator)를 적용하여 중국 내의 아는 사람의 직업을 복수로 응답하게 한 다음 트라이만의 SIOPS 점수를 사용하였다(<표 2> 참조). 이 방법은 트라이만의 SIOPS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반올림하여 10으로 나눈 값으로 같은 값들은 하나의 값으로 묶었다. 그 이유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측정방법을 사용한 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다양한 계급을 고루 알고 있으면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 방법은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과 연결망의 크기에 의한 효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폐쇄적 사회자본은 중국에서의 종교단체, 동창회, 향우회의 사적인 모임의 참여 빈도를 합하여 평균을 낸 것이다.

〈표 3〉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종속변수	현재직업만족도	1점에서 7점으로 측정
매개변수	월평균 소득	중국에서의 월평균 소득
	소득변동	중국 월평균 소득-한국 월평균 소득(단위: 위안)
개인적 특성 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만 나이(각세)
	거주기간	중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총 기간(개월)
	중국이해정도	중국어 구사능력, 중국 사회·문화 이해, 중국 역사 이해, 중국 정치 이해, 경제 운용 메커니즘 및 경제 동향, 업종 동향 및 업계 경쟁 메커니즘 합계의 평균: 매우 형편없다(1)-매우 잘한다(5)
독립 변수	개방적 사회자본	중국 아는 사람의 지위발생기
사회적 관계 변수	폐쇄적 사회자본	종교단체 모임, 동창회, 향우회 참여 빈도의 합계 평균: 미가입(1)-모임에 자주 참여한다(4)
	가족동거	혼자=0, 아는 사람=1, 친구, 선 후배=2, 배우자와 나의 친척=3,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4, 나와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5, 배우자=6

주: 1) 소득변동은 한국 월평균 소득에 2010년 7월 기준 외환은행 환율을 곱하여 위안으로 변경 후 비교하였음

2) 개방적 사회자본은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의 사회적 자본 측정방법인 지위 발생기를 이용하여 트라이만의 SIOPS 점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동거 변수는 중국 내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질문한 다음, 혼자 살면=0, 아는 사람=1, 친구, 선·후배=2, 배우자의 친척과 나의 친척=3, 나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4, 자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와 배우자의 어머니=5, 배우자=6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V.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종속변수인 직업만족도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MOS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변수를 상관관계를 갖는 매개변수인 소득과 소득변동을 통해 종속변수인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월평균 소득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월평균 소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소득변동, 성별, 연령, 중국거주기간, 중국이해정도, 개방적 사회자본, 폐쇄적 사회자본, 가족동거 변수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국이해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을 가질수록, 가까운 가족과 함께 살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아진다. 특히 월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은 높은 상관계수($r=0.843$)를 갖는 만큼, AMOS분석을 할 때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소득변동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변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성별, 중국거주기간, 중국이해정도, 개방적 사회자본, 폐쇄적 사회자본, 가족동거 변수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중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국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을 보유할수록, 가까운 가족과 함께 살수록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소득이 높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직업만족도	1.000									
(2) 월평균 소득	0.201**	1.000								
(3) 소득변동	0.40**	0.843**	1.000							
(4) 성별	0.101	0.252**	0.163*	1.000						
(5) 연령	-0.169*	0.122 †	-0.065	0.174*	1.000					
(6) 중국거주기간	0.088	0.258**	0.276**	0.130 †	0.241**	1.000				
(7) 중국이해정도	0.290**	0.284**	0.282**	0.138 †	0.018	0.477**	1.000			
(8) 개방적사회자본	0.005	0.176*	0.183*	-0.027	0.023	0.038	0.148*	1.000		
(9) 폐쇄적사회자본	0.049	0.312**	0.291**	0.026	0.189**	0.252**	0.243**	0.128 †	1.000	
(10) 가족동거	0.097	0.163*	0.154*	0.009	0.144*	0.203**	0.034	0.134 †	0.181*	1.000
평균	4.71	27275.15	7071.98	0.86	43.84	107.42	3.22	11.77	1.97	4.38
표준편차	1.47	18449.52	20324.67	0.352	7.54	57.82	0.72	9.52	0.71	2.54

주: † p < .10 * p < .05 ** p < .01 N=190

마지막으로 직업만족도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직업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월평균 소득, 소득변동, 연령, 중국이해정도 변수이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한국보다 중국소득이 높을수록, 중국이해정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만족도는 낮아진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두 변수와의 관계 여부와 방향만을 알 수 있고,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개변수인 월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이 상관관계를 포함한 경로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PSS는 힘들어서 상관관계를 포함한 분석을 할 수 있는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2. 직업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표 5>는 직업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χ^2 을 가지고 이루어지나 표본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FI, AGFI, NFI, GFI, ACI 값을 사용하였다. χ^2 값이 작을수록 유의확률은 커지기 때문에 영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 확률도 커지며 다른 적합도 지수들 역시 기준치를 더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Q(CMINDF)=\chi^2/df$ 값을 통해 5 이하면 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초기연구모형은 최적 모형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χ^2 이 121.08($p=0.00$)이고 $Q(CMINDF)$ 값이 5.8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적합지수가 부적절함으로 모형의 적합지수가 획득되고 있지 않다.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와 C.R. 값에서 유의수준이 유의미하지 않은 값(C.R. 값이 1.96보다 작은 값) 중 유의확률 값이 다른 변수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값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수정지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지수로서 변수 간의 새로운 경로를 찾아 적합도를 향상해준다. 먼저, 수정모형 1은 연령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소득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은 121.16($p=0.00$)이고 $Q(CMINDF)$ 값은 5.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적합지수도 부적절하게 나타났다. 수정모형 2는 수정지수를 통해 연구모형을 수정한 것이다. 그 결과 χ^2 은 21.18($p=0.131$)이고 $Q(CMINDF)$ 값은 1.4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도 기준치에 맞게 나타났다. 초기 연구모형을 검증한 수정모형 1, 2의 수치를

〈표 5〉 직업만족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	GFI ¹⁾	AGFI ²⁾	NFI ³⁾	GFI ⁴⁾	ACI ⁵⁾	χ^2 ⁶⁾	p
초기연구모형	0.88	0.69	0.75	0.77	189.08	121.08	0.00
수정모형1	0.88	0.72	0.75	0.77	185.16	121.16	0.00
수정모형2	0.98	0.92	0.96	0.99	101.18	21.18	0.13

- 주: 1) 적합도 지수 Goodness of Fit Index: 실제자료의 모델에 의해 예측한 예측결과와의 제곱잔차를 나타냄.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서 중상관치(R^2)와 관련이 있다(0.9 이상 바람직).
- 2) 수정된 적합지수 Adjusted GFI: 제안모델에 대한 자유도의 비율을 기초모델에 대 자유도의 비율로 수정한 것으로 회귀분석의 수정된 중상관계수에 해당한다(0.9 이상 바람직).
- 3) 표준적합지수 Normal Fit Index: 표준화시킨 부합치.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0.9 이상 바람직).
- 4) Comparative Fit Index: NFI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0.9 이상 바람직).
- 5) 아카이계의 정보량 기준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진짜모델과 그 모델의 근사함을 측정하여 작은 모델이 좋은 모델임. 복수의 모델 간을 비교할 때 유효하다.
- 6) 카이제곱 통계량($p=0.05$ 이상 바람직).

비교한 결과, 수정모형 2가 최적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수정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했다.

〈표 6〉은 직업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이다. 먼저, 월평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쇄적 사회자본($B=0.224$), 성별($B=0.222$), 중국이해정도($B=0.141$), 개방적 사회자본($B=0.120$)이다. 여자보다는 남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부장적인 제도가 살아있는 중국사회에서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은 거주국 내의 의사소통이 경제활동이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알수록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을 통한 정보획득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보이는 것은 재중한국인의 사적 모임으로 교회나 향우회, 동창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재중한국인 집단내의 사회적 관계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소득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쇄적 사회자본($B=0.222$), 연령($B=-0.198$), 중국거주기간($B=0.175$), 성별($B=0.158$), 개방적 사회자본($B=0.130$)이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한국과 소득을 비교했을 때 중국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관계를 보면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재중한국인 사적 모임에 나가는 것이 한국과 소득을 비교했을 때 중국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표 6〉 직업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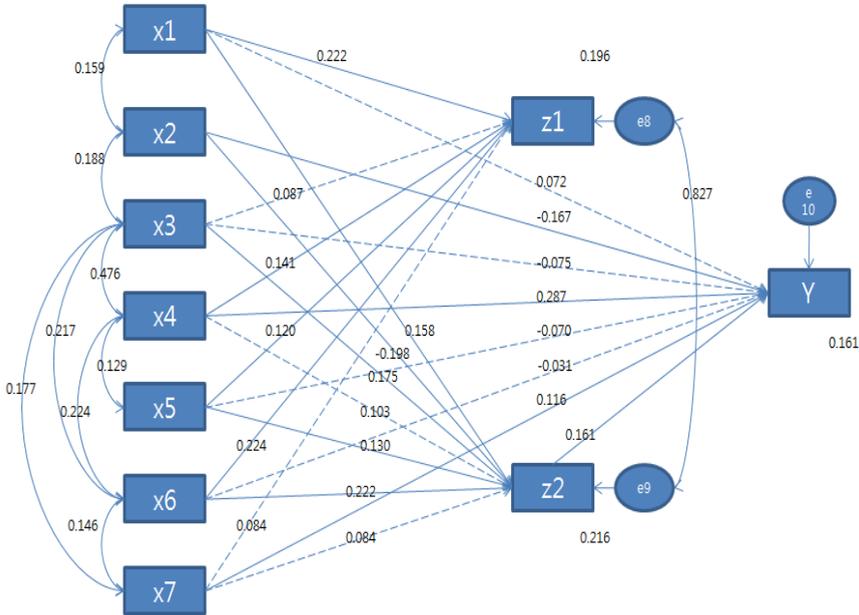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C.R. (t값)
성별 → 월평균소득	0.222	3327.340	3.450**
중국거주기간 → 월평균소득	0.087	23.798	1.152
중국이해정도 → 월평균소득	0.141	1906.672	1.868 †
개방적 사회자본 → 월평균소득	0.120	124.271	1.845 †
폐쇄적 사회자본 → 월평균소득	0.224	1736.442	3.319**
가족동거 → 월평균소득	0.084	475.606	1.271
성별 → 소득변동	0.158	3687.346	2.473*
연령 → 소득변동	-0.198	100.248	-5.328**
중국거주기간 → 소득변동	0.175	26.475	2.336*
중국이해정도 → 소득변동	0.103	2107.649	1.385
개방적 사회자본 → 소득변동	0.130	137.133	2.027*
폐쇄적 사회자본 → 소득변동	0.222	1736.442	3.319**
가족동거 → 소득변동	0.084	524.941	1.282
성별 → 직업만족도	0.072	0.283	1.059
연령 → 직업만족도	-0.167	0.014	-2.385*
중국거주기간 → 직업만족도	-0.075	0.002	-0.936
중국이해정도 → 직업만족도	0.287	0.159	3.687**
개방적 사회자본 → 직업만족도	-0.070	0.010	-1.049
폐쇄적 사회자본 → 직업만족도	-0.031	0.147	-0.437
가족동거 → 직업만족도	0.116	0.039	1.698 †
소득변동 → 직업만족도	0.161	0.000	2.162*

주: † $p < .10$ * $p < .05$ ** $p < .01$ N=190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영업의 경우 거주국의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거나 같은 이민자 집단 내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해정도($B=0.287$), 연령($B=-0.167$), 소득변동($B=0.161$), 가족동거($B=0.116$)이다. 중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거주국 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는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갖게 한다. 중국이해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에서 창업한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과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현지사회와의 고립으로 인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김운태(2003)의 연구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만족도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영업자에게 한국과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소득이 더 높다면 직업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다만 사회적 관계 중에 중국의 다양한 계층을 많이 아는 개방적 사회자본과 재중한국인

[그림 2] AMOS를 이용한 경로모형



x1 :성별, x2: 연령, x3: 중국거주기간, x4: 중국이해정도, x5: 개방적사회자본, x6: 폐쇄적사회자본, x7: 가족동거
 Z1: 월평균소득, Z2: 소득변동, Y: 직업만족도

사적 모임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폐쇄적 사회자본은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같이 살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재중한 국민 자영업자의 경우 가까운 사람과 같이 살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 연대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그림 2]는 AMOS를 이용하여 작성한 경로모형이다. [그림 2]에 제시된 경로계수들(path coefficients)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순효과(direct net effect)를 나타낸다. 아울러 직업만족도의 결정요인들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간접 및 총 효과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들을 가지고 비인과적인 경우의 경로모형을 나타냈다. 즉, 성별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r=0.159$), 연령과 중국거주기간의 상관관계($r=0.188$), 중국거주기간과 중국이해정도의 상관관계($r=0.476$), 중국이해정도와 개방적 사회자본의 상관관계($r=0.129$), 중국이해정도와 폐쇄적 사회자본의 상관관계($r=0.224$), 중국거주기간과 폐쇄적 사회자본의 상관관계($r=0.217$), 중국거주기간과 가족동거의 상관관계($r=0.168$), 폐쇄적 사회자본과 가족동거의 상관관계($r=0.177$),

〈표 7〉 재중 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별	0	0.025	0.025
연령	-0.167	-0.032	-0.198
중국거주기간	0	0.028	0.028
중국이해정도	0.287	0	0.287
개방적 사회자본	0	0.021	0.021
폐쇄적 사회자본	0	0.036	0.036
가족동거	0.116	0	0.116
월평균 소득	0	0	0
소득변동	0.161	0	0.161

소득과 소득변동의 상관관계($r=0.827$)를 나타냈다. 그리고 경로모형상의 실선은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한 경우의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이다.

〈표 7〉은 총 효과의 측면에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나타낸 것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가지고 직접, 간접 및 총 효과를 산출하였다. 총 효과의 측면에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중국이해정도($B=0.287$)가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령($B=-0.198$), 소득변동($B=0.161$), 가족동거($B=0.116$), 폐쇄적 사회자본($B=0.036$), 중국거주기간($B=0.028$), 성별($B=0.025$), 개방적 사회자본($B=0.0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변수들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총효과의 측면에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중심으로 직업만족도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은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 → 소득변동 → 직업만족도의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5$). 중국거주기간도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중국거주기간 → 소득변동 → 직업만족도의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8$). 개방적 사회자본도 마찬가지로 개방적 사회자본 → 소득변동 → 직업만족도의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1$). 폐쇄적 사회자본도 직접효과보다는 폐쇄적 사회자본 → 소득변동 → 직업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36$). 이에 반해 소득변동은 직접적인 효과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61$). 중국

이해정도도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87$). 가족동거도 마찬가지로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61$). 또한, 연령의 경우 직접효과($B=-0.167$)와 연령 \rightarrow 소득변동 \rightarrow 직업만족도의 경로를 통한 간접효과($B=-0.032$)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98$).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소득변동을 통하여 직업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해정도가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데는 중국 사회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알고 경제 운용 메커니즘을 알아야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변동도 직접적인 영향과 소득변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히 중국에서의 절대적인 소득보다는 경제적 기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과의 상대적인 소득 비교를 통해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판시’ 문화가 발달한 중국 사회에서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아는 것과 종교단체 모임, 동창회,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변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동거의 경우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는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경우 전통적인 이주자와 다르게 장소의존성이 낮다. 그렇다는 것은 거주국을 옮겨 다닐 때마다 다시 형성해야 하는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 연대가 직업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AMOS를 이용한 경로 분석을 함으로써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변수의 직접효과와 소득과 소득변동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별, 중국이해정도,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이다. 즉 성별에 따라 월평균 소득에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문화,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소득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중국사회와 교민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가 월평균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득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령, 성별, 중국거주기간,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이다. 소득변동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의 소득이 중국보다 높고, 여자보다 남자가 한국보다 중국의 소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변수 중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소득변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아는 것과 중국 내의 사적인 모임에 참가할수록 한국보다 중국의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 사회와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수록 중국에서의 소득이 한국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해정도, 연령, 소득변동, 가족동거이다.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다. 또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가 중국에 진출할 때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나 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출하는 만큼 한국과 소득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소득이 높으면 직업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월평균 소득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적인 소득보다는 한국과 비교한 소득변동이 직업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변수 중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의 경우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아는 것과 중국 내의 사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소득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몰라도 직업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에서 초국적 이주 자영업자의 경우 거주국에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주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의존성이 낮고, 이로 인해 장소의존성이 높아야 얻을 수 있는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먼저, 계속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재중한국인 자영업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주와 다르게 초국적 이주의 형태를 보이며, 이들이 직업만족도를 높이려면 중국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계 변수, 소득변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현지사회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과 현지사회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소득변동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경제적 기회의 목적으로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관계 변수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개방적 사회자본과 폐쇄적 사회자본보다 가족동거 변수가 직업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지사회와의 관계와 재중한국인 사이의 관계보다 가까운 사람과 살면서 얻는 정서적 연대가 현재의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소의존성이 낮은 초국적 이주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므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초국적 이주자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차원성을 갖는 직업만족도를 단일 차원으로 측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한중수교 이후 새로운 이주형태를 보이면서 중국에 진출한 재중한국인 자영업자의 중국진출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향과 자영업자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재중한국인들의 거주국에서의 만족에 영향을 요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학》 58(1): 5-36.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AMOS 18.0』. 한나래아카데미.
- 김명아. 2006. “사이버공간의 사회자본형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생의 온라인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선·옥선화. 2005.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223-239.
- 김우영·김응규. 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 김윤태. 200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 《중소연구》 97:

91-121.

- 김재기. 2003.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집거구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28: 53-77.
- 김찬배·이윤철. 2008. “사회적 자본이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적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4): 103-126.
- 김혜진. 2006. “한국기업의 중국 내 경영전략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일체화와 현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1): 135-163.
- 노형진. 2011. 『AMOS로 배우는 구조방정식모형』. 학현사.
- 박순영. 2006. “사회자본과 지위획득: 사회적배제의 재조명.”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 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s): 133-154.
- 백권호·장수현·김윤희·정종호·설동훈. 2010. 『재중 한인사회 연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백형엽. 2006. “재일동포 자영업체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215-239.
- 설동훈·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심경섭·설동훈. 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안화선. 2009. “한국 및 중국 조선족 기혼취업여성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2(2): 315-340.
- 오유진. 2006. “자영업주의 직업 만족과 생활 만족.”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1-14.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이성균. 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 40(5): 178-206.
- 이승렬·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7(4): 59-85.
- 이애란. 2004. “사회적 자본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 이영찬. 2007. “기업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지식연구』. pp. 47-74.
- 이은아. 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 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 임영언.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연구》 17: 87-120.
_____. 이석인. 2006.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 연구》 10(3): 382-402.
- 임효영·김경신.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 장윤수. 2006. “재외한인사회와 민족문화네트워크.” 《대한정치학회보》 14(2): 103-130.
- 장지혜.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한국이민학》 1(2): 67-95.
- 정성호. 1998. “해의 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인구학》 21(1): 105-128.
- 정윤수. 2006. “재외한인사회와 민족문화네트워크.” 《대한정치학회보》 14(2): 103-130.
- 주봉호. 2006.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1: 149-172.
- 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 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문경·이명진.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최영근. 2009.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의 지분율과 산업환경 선택의 조절 효과 탐색.” 《POSRI 경영연구》 9(2): 32-71.
- 한주성. 1998.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 역지리학회지》 4(2): 219-234.
- 홍두승. 2005.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 홍성희. 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43-156.
- _____. 2005. “소규모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126.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6): 1309-1335.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1.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vans, Mariah D.R. 1989. “Immigrant Entrepreneurship: Effects of Ethnic Market Size and Isolated Labour Po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950-962.
- Faist, Thomas. 2010a. “Transnationalisation: Its Conceptual and Empirical Relevance.” pp. 79-105 in *Migration in a Globalised World: Recent Issues and New Paradigms*, edited by Cédric Audebert and Mohamed Kamel Dorai.

- Amsterdam,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10b. "The Crucial Meso-Level." pp. 59-90 in *Selected Studie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mmigrant Incorporation*, edited by Marco Martiniello and Jan Rath. Amsterdam,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10c.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What Kind of Dance Partners?" pp. 9-34 i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Rainer Bauböck and Thomas Faist. Amsterdam,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2. *Happiness and Economy: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Social Structure and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ammarstedt, Mats. 2001. "Immigrant Self-employment in Sweden: Its Variations and Some Possible Determinant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3(2): 147-161.
- Lin, Na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 22(1): 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and Mary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Locke, Edwin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 1297-1343.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_____, and Min Zhou. 1996. "Self-Employment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219-230.
- Treiman, Donal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Transnational Migrants of Korean Self-employed Persons in China

Suk-Ho Cho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 remarkable number of people are migrating overseas in pursuit of business opportunities since the recove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ck in 1992. Most of them work as self-employed entrepreneurs, often forming ethnic business different from not only Chinese citizens but also Chaoxianzu (朝鮮族; Chinese people of Korean descent). The New immigration by some Korean entrepreneurs has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traditional immigration resulted in Chaoxianzu. The traditional immigration requires one's foundation removed from his motherland and adapting it into foreign country and additionally grouping of emigrant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self-employed Korean entrepreneurs in China maintain their citizenship but they still hold their residency in China; which event is now defined as "transnational migration." The transnational migrants tend to travel around the globe rather than settling in one country,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traditional migrants. A high ratio of self-employed entrepreneurship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transnational migrants shows that they have arduous barriers to communicate and entering the labor market. This paper intends to expla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job satisfaction. I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is three. (1) the level of income is determined by social capital as well as socioeconomic variable, (2) the change of income levels between origin (Korea) and destination (China) is also determined by social capital as well as socioeconomic variables, (3) the job satisfaction is explained by the change of income levels and the family relationship as well as socioeconomic variables. As regarding their job satisfac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emotional relationship representing family.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entrepreneurs are building social capital not only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various Chinese citizens of various levels of social classes but also through associations, meetings, religious groups of Korean communities. Transnational migrants hardly rely on location which makes it auspicious for any business activities.

Keywords: self-employed, transnational migrants, job satisfaction, social capital, structural equa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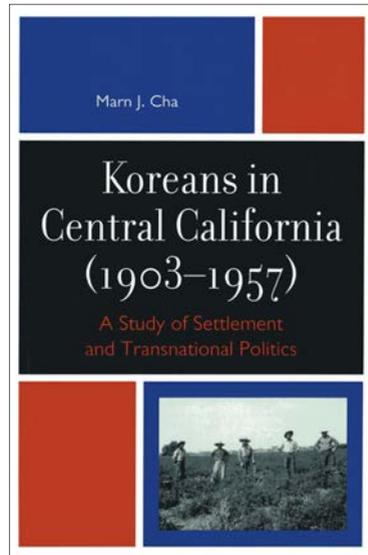
서평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한인 이민사, 1903-1957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 Marn J. Cha., 2010. Lanham and Boulder: University Press of America.

김 미 경*

대부분의 이민사는 절절하다.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공간적 환경과 개인과 집단이 서로 역동적으로 얽혀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정치사회구조’니 ‘인간행위자’니 하는 어려운 사회과학 용어들조차 쓸데없는 치장처럼 들린다. 이국에서의 한 시대를 모국과의 끈을 놓지 않고 점멸하듯 살아간 사람들에 관한 이민사 속에선 당대의 숨 막히는 국제정세가 되살아나고, 조국의 운명과 정치이념이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고, 또 희망과 좌절을 겪은 개인들의 희로애락이 보인다. 재미 원로정치학자인 차만재 교수의 역저 『미국 캘리포니아 중



부지방의 한인(1903-1957): 정착과 초국가적 정치 역학 연구』(*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는 이런 의미에서 이론적 공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희귀자료발굴과 치밀한 분석, 그리고 독자의 감동까지 아우르는 역작이다.

초국가적 관점에서의 이민사 연구의 전통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국적지위와

*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교-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부교수. mkkim_33@hotmail.com.

인종적 분류가 별도의 역학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이민자사회의 내부 동화 그리고 외부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모국의 존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넓어지면서 초국가적 관점에서의 이민사회분석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Robert Park)가 개념화한 “한계인(Marginal Man)”은 한 국가 범주 안에서 국적과 인종 등에 따른 복수의 정체성을 갖지만, 주류사회에선 소외된 채 자신들만의 분리된 사회 안에서만 정주한 이민자들을 묘사한 내용이었기에 모국보다는 주류사회와의 관계설정과 그 분석이 주요 관점이었다(Park, 1928). 그 이후 속속 등장한 “용광로(Melting Pot)”, “샐러드 볼(Salad Bowl)” 등으로 묘사된 이론들이나 이중시장구조론에서 파생된 “중간상인 역할론(Middleman Minority)”(Bonacich, 1973)과 “이민자 사업가론(Immigrant Entrepreneurship)”(Bonacich, 1987)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의 주류사회로의 적응과 동화과정,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서의 경제적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을 타자화하는 불균형적 권력 관계를 무비판적으로 전제한 연구작업의 행태를 노정 시키게 되었다. 그런 편향을 모국 발(發) 이민사회의 관계역학분석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교정시킨 연구작업이 초국가적 이론이다. 이민자들의 모국에서의 삶이 새로운 현재 상황에 매몰당할 수 있다는 비(非)역사성의 구조론적 관점도 그들의 현재가 이미 떠난 땅과 깨끗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균형적 역사성을 초국가적 관점이 제시한다는 평가도 바람직한 공헌이다.

차만재 교수의 이번 작업도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이 서서히 시작된 190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에서의 자생적 좌파민족주의 그룹이 사라진 1957년까지의 주요사안과 변동을 개인적, 사회집단적 단위에서 분석한다. 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거쳐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과수원과 포도밭에서 일일 노동자로 일하던 조선인 이민자들은 격변의 시기를 지나던 조국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일 예로 수입의 10분의 1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교회의 헌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독립운동기금으로 기부한 명세와 각기 다른 노선을 걸은 독립운동가들을 둘러싼 격론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초국가적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도 남는 부분들이다.

이런 이론적 공헌과 더불어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희귀자료의 발굴과 분석이다. 한인들이 많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의 비문 자료 분석을 통한 개인신상의 역추적,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자연사, 자살, 병사, 살해 등)으로 추론해 본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 모습에 관한 서술은 부지런히 발로 뚫은 연구자만이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사료에 기인한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일상 속 지식도 가치 있다. 초임 교원 시절 안내받은 호텔의 객실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묵었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밸리(Valley) 지역을 거점으로 뿌리내린 2세대, 3세대들을 직접 면담하여 작성한 구술자료 등은 개인적 신뢰와 네트워크가 없이는 얻기 어려운 주요 사료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자생적 좌파민족주의 그룹에 대한 분석은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한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후행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 인물 중심의 분석도 무척 흥미롭다. 데이지 킴과 해리 킴 부부, 그리고 모국에서 데이지 킴의 스승이던 찰스 킴의 동업자로서의 인연, 50세를 넘긴 이승만 박사가 이 부부의 20대 초반의 딸에게 청혼한 내용 등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사의 일부다. 스위스식 중립국 건설을 주창하여 좌, 우 모두에서 고립당한 김영정의 노력과 운명, 라이스 킹(Rice King)으로 불리던 김종립과 그의 항일전쟁 준비용 폭격기 조종사 양성 학교운영 등에 관한 행적도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차만재 교수의 역작은 김형찬(Kim, 1977), 허원무·김광정(Hurh and Kim, 1984), 민병갑(Min, 2008) 선생님들이 이어온 선행 한인미국이민사의 명맥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사회의 내부변동을 모국의 상황과 설득력 있게 엮은 귀중한 연구이기에 관심 있는 전공자들과 일반 독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참고문헌

- Bonacich, Edna.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583-594.
- _____. 1987. "Making It in America: A Social Evaluation of the Ethics of Immigrant Entrepreneurship." *Sociological Perspectives* 30(4): 446-466.
- Hurh, Won Moo, and Kwang Chung Kim. 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Kim, Hyung Chan (ed.). 1977.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Santa

Barbara: ABC-Clio.

Min, Pyong Gap. 2008. *Ethnic Solidarity for Economic Survival: Korean Greengrocers in New York C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ark, Robert E. 1928.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6): 881-893.

(2011. 9. 13. 접수; 2011. 9. 20. 수정; 2011. 9. 23. 채택)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약칭: KIM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

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감사 2인
 4. 이사: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상임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총무, 편집, 연구, 기획, 섭외, 국제,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전임 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제17조에 의한 연구회의 운영, 기타 학

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기획이사는 학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섭외이사는 회원유치,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 ① 본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5. 본 학회의 기금
 - 6.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장: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훈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계재가” 또는 “계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계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계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계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계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신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훈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테르(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증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化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ヨ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가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썸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2권 제2호

인쇄일: 2011년 12월 31일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발행인: 한경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2 No.2 2011

Articles

Sweden'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 Dong-Hoon Seol, and Byoung-ha Le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 Boundaries
among Filipino Migrants

■ Donghwan Moon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Transnational Migrants
of Korean Self-employed Persons in China

■ Suk-Ho Choi

Book Review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 MikyoungKim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